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 복음자리 · 한독마을 · 목화연립 -

2012. 12

시흥문화원

1. 조 사 개 요

1) 조사의 목적

시흥시에는 지난 수십 년 간 이루어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연마을이 사라지고, 고밀도의 집단 거주지가 곳곳에 형성되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 자연마을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조사사업은 시흥시 지역의 자연마을에 대한 문헌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연마을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점차 사라져 가는 자연마을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경험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또한 개발의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자연마을의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을 기록을 남김으로써 지역단위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역문화 발전의 밑그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구술자료, 기록자료, 사진자료 등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어진 기초 자료로서, 조사내용은 내용 검토 및 편집, 추가 구술자료 확보, 보충조사 등 보완 작업을 거쳐 2013년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임을 밝혀 둔다.

2) 조사 기간

이 조사사업은 2012년 7월부터 2012년 11월말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3) 조사 범위

현재 시흥시에는 이미 자연마을의 형태를 잃어버린 곳이 다수 존재하며, 향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도 있다. 이번 조사사업은 자연마을에 대한 첫

기록 작업으로서 신천동 복음자리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목화마을과 한독마을을 대상지로 삼았다.

이들 마을은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형성 시기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자리 마을과 한독마을은 이미 흔적을 잃었으며, 목화마을의 경우 건축 시기가 오래되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마을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외부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마을로 산업화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서울 변두리 지역의 빈민과 철거민들도 구성된 이주민들은 시흥 지역에 스스로 마을을 일구고 공동체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도 크다.

4) 조사 방법

이번 조사는 시흥시 향토사료실의 기획과 시흥문화원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시흥시 지역사 연구동아리인 시흥역사문화연구회 회원들과 제정구기념사업회 관련 인물 등이 조사자로 참여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광수(‘시흥의 소리’ 대표)

최영숙(사진작가, 칼럼니스트)

이용범(소설가)

박종남(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칼럼니스트)

조사자들은 복음자리 마을을 처음 구상한 제정구 선생과 정일우 신부에게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구기념사업회,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경기시흥신용협동조합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하였다. 또 해당 마을 주민 및 원주민들을 방문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자료와 문서자료 등을 수집하고, 이들의 구술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문서자료와 사진자료는 2013년 단행본 출간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거나, 스캔작업을 통해 디지털화하여 향토자료실로 이관하였다. 또 구술 조사 시 비디오 녹화를 실시한 경우, 녹화된 영상 자료 일체도 향토자료실로 이관하였다.

5) 기대 효과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향후 자연마을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연마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지역공동체의 흔적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사라져가는 자연마을에 대한 기록화 사업은 시흥시민의 애향심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구 술 조 사

▣ 일러두기

- 심병현 전 신협 이사장 외 일부 구술 자료는 조사팀 사정으로 신지 못하였다. 2013년 단행본 간행 시 보완 작업을 통해 수록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1) 위성종(현 경기도시흥신협 이사장, 1945년 생)

- ▣ 인터뷰 일시 : 2012. 11. 30.
- ▣ 인터뷰 장소 : 경기도시흥신협 이사장실
- ▣ 인터뷰 내용 : 복음자리 마을

▶ 어떻게 복음자리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자리 마을은 서울에서 사다가 철거를 당한 사람들이 이주하여 만든 동네다. 나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이주했는데 사실 양평동에 살지는 않았다. 그때가 1977년이었는데, 당시 누님이 양평동에 살고 있었다. 누님 댁을 자주 들락거렸는데, 누님으로부터 집이 철거되면 시흥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 누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이주하기로 했다.

▶ 처음 이주할 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시흥에 도착해보니 허허벌판이었고, 동네도 면소재지였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 개 부락 정도의 규모였다. 처음엔 막막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살면서 함께 집을 지었다. 나는 처음엔 복음자리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1년 세를 살다가 두 칸짜리로 옮겼다. 복음자리에서 몇 년을 살다가 다시 나갔다가 결혼한 후 서른셋인가 넷인가에 다시 복음자리로 돌아왔다.

그때는 철거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등을 대고 잘 수 있는 방 한 칸을 갈망하던 시절이었다. 처음 복음자리 마을로 이주를 결심했을 때, 철거민들이 그곳으로 이주하면 적어도 등을 대고 살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 이주민들의 생활과 분위기는 어떠했는지요?

서로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섞이다 보니 처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제정구 선생과 정일우 신부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복음자리의 정신이었다.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 처음엔 갈등도 있었지만 점차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복음자리 마을에는 울타리가 없었다. 다들 가난하게 살았어도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는 일이 없었다.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 그때는 정말 생활이 어려웠지만 그렇게 살았다. 지금은 너무 많이 발전된 세상이지만 재개발로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에 대한 정이 사라져서 아쉽다.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되었다.

▶ 신용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복음신용협동조합은 다섯 사람이 시작했다. 제정구, 김만호, 심병현, 백경현 같은 사람들이다.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제정구 선생이 다른 곳에서 교육도 받고 독일에 다녀오기도 했다. 1978년에 복음자리 마을에 입주해 끝나고, 바로 그해에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당시 이주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제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경제적 관념을 심어주고 이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신협 설립이 추진되었다. 신협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회도 가졌다.

신협은 처음 문을 열고 간판도 없이 시작했다. 없는 사람들끼리 푼돈을 모아 더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조금씩 돈을 냈다. 빈병을 주워 돈을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처음에는 복음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차츰 나중에 이주해온 목화마을과 한독마을 사람들까지 참여가 확대되었다. 신협을 통해서 이주민들끼리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나중에는 땅을 사서 작은자리회관 옆에 신협 건물을 지었다. 나중에 작은자리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협 건물을 작은자리에 넘기고 현재 위치에 건물을 신축했다.

2) 김숙진(현 신천동 거주, 47세)

- ▣ 인터뷰 일시 : 2012. 10. 08.
- ▣ 인터뷰 장소 : 신천동
- ▣ 인터뷰 내용 : 목화마을

▶ 시흥으로 언제 이주하셨습니다?

1986년 가을에 시흥으로 이사했다. 그때 나이 21세였다. 나는 철거민촌에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었다. 부천 소사에 외가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잠시 외가에 머물고 있었고, 아버님은 혼자 서울에 살고 계셨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가져야 했고, 독립도 해야 할 나이였다. 그래서 방값이 싸고, 일자리가 있었던 시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시흥으로 와서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는 웃터골에 방을 얻어 살았다. 첫 직장은 삼신전자였는데, 거기서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광덕물산(현재 대우4차 아파트 자리)으로 자리를 옮겼다.

▶ 목화마을에는 언제 거주했나요?

1년 정도 웃터골에 살다가 목화마을로 들어갔다. 그때는 목화마을이 이미 지어진 뒤였는데, 내 나이 22세 때였다. 처음엔 월세로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5만원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안다. 당시 아는 언니와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 화장실은 공동화장실을 이용했고, 방 한 칸에 주방 겸 거실, 연탄보일러실이 있었다. 당시 월세 계약은 목화마을 자치위원회와 했다.

▶ 목화마을에서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사는 것이 좋았다. 그대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했는데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함께 있던 직장 동료 두 명과 함께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목화마을에는 젊은 여성들도 꽤 있었다. ㄷ자 형태로 되어 있어 사방으로

이웃집을 볼 수 있었고, 맞은편에 사는 이웃과도 대화가 가능했다. 방도 넓어서 아가씨들이 열댓 명 앓을 정도였다. 당시만 해도 목화마을은 신축건물이어서 방을 구하기 힘들었다. 연줄이 있어야 방을 구할 수 있을 정도였다. 주변에 공장들이 있어서 방을 구하기가 어렵던 시절이었다.

함께 살던 아는 언니가 떠난 뒤에는 27세까지 혼자 목화마을에 살았고, 마지막엔 현재 남편과 1년을 함께 살았다. 남편(김관수)과는 광덕물산 노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동갑나기이고 이곳 토박이다. 결혼을 하면서 목화마을에서 복음자리 마을로 이사했다. 목화마을에 살 때부터 작은자리회관에 들락날락했는데, 복음자리 마을로 이사하면서 나름대로 청년활동도 열심히 했다.

▶ 작은자리회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었다. 작은자리회관에서는 청년들이 여럿 활동하고 있었는데 단오제 행사를 준비하고 문화행사도 열었다. 나는 청년들과 함께 연극도 하고, 공연도 했다. 목화마을에 살 때는 친구들과 함께 단오제에 참석했는데, 무료로 밥도 쥐서 무척 좋았다.

집회에도 많이 참석했다. 1987년 민주화투쟁이 있었을 때 주로 부평에서 열리는 집회에 많이 참여했다. 광덕물산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 교육부장을 맡았는데, 22세 때 처음 신랑을 만나 결혼에까지 골인했다.

▶ 직장생활과 노조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면?

당시 광덕물산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은 주경야독했다. 광덕물산은 전자, 모피, 봉제 파트가 있었는데, 전자와 봉제 쪽에 아가씨들이 많았다. 전자 쪽에서는 테스터기를 주로 생산했는데, 여직원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다. 처음 입사하면 반 배정하듯이 전자, 모피, 봉제 파트로 배정했다. 회사 성격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많이 근무했는데, 남자직원들은 구성이 다양하여 회식하는 날에는 아가씨들이 아저씨들과는 막걸리, 아가씨들끼리는 맥주, 총각들과는 소주를 마시곤 했다.

결혼 전까지 나는 모피창고에서 주로 재고를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모피창고에는 남자직원 2명이 더 있었다. 노조 설립 당시 협박도 많이

받았다. 나는 교육부장으로서 노조 소식지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일을 주로 담당했는데, 당시 소식지는 대야인쇄에서 인쇄했다.

그때 당당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너무 좋았던 시절로 기억한다. 하지만 복음자리가 없어져 약간 서운하다.

광덕물산이 없어지고 1992년부터 남편과 FRP 사업을 시작했다. 남편이 다른 공장을 다니며 기술을 습득했는데, 처음에는 친구가 운영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다가 1992년에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1998년에 축사에 임시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가 2004년에 정왕동으로 옮겼고, 2006년에 현재의 자리로 이사했다.

현재 한독마을은 녹원아파트로 재개발되었지만 목화마을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목화마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니 아쉽다. 내 젊은 시절이 묻어 있는 곳이다. 가끔 그 앞을 지날 때면 마음이 짝하다.

▶ 제정구장학회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복음장학회(현 제정구장학회)와 관련한 기억이 하나 있다. 1989년인가 노태우 정권 시절이었는데, 당시 복음장학회가 ‘한울타리’라는 공동체운동 단체와 한 건물을 쓰고 있었다. 나중에 대야 잼 공장이 들어섰던 건물이다. 어느 날 무뢰한들이 이 건물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울타리 구성원 중 누군가 모 단체에서 내건 플래카드를 찢었는데, 그 모습을 발견한 모 단체 회원들이 추적하여 한울타리를 급습한 것이다. 당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람이 건물 내에서 자다가 봉변을 당했다. 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고 집기만 일부 파손되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딸 둘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3) 김광남(현 은행동 거주, 1958년 생)

- ▣ 인터뷰 일시 : 2012. 11. 01.
- ▣ 인터뷰 장소 : 신천동 화훼단지
- ▣ 인터뷰 내용 : 복음자리 마을

▶ 복음자리 마을로 이주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1977년에 시흥으로 왔다. 고3 때였는데 부모님과 함께 복음자리 마을이 생길 때 이주했다. 복음자리는 1976년에 양평동과 문래동에 살던 강제 철거민들이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단지 자리에 이주하면서 만들어졌는데, 1976년엔 아버지만 먼저 오고, 나와 어머니는 서울에 남아 함께 생활했다. 나는 1978년에 주택의 뼈대가 갖추어져 있을 때 시흥에 왔다.

▶ 처음 이주했을 때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아버지가 처음 복음자리에 도착했던 1977년에는 허허벌판에 대형천막을 짓고 살면서 건축공사를 진행했다. 그때 제정구 선생과 정일우 신부가 철거민들과 함께 직접 집을 지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 건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노동에 참여했다. 이주자들 중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분들이라 미장이, 목수, 벽돌 만들고 쌓기에 대해서는 익숙한 분들이었다.

제정구 선생과 정일우 신부는 공동체에 참여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강조했다. 노동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용을 더 부담했다. 복음자리 마을은 거의 주민들 손으로 완성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 내장공사까지는 마무리하지 못하고 뼈대를 세우고 지붕만 씌우면 바로 입주했다.

▶ 복음자리 마을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처음에 지은 복음자리 마을은 단독주택 형태로 가로로 길게 건축했다. 한동에 4세대 혹은 3세대씩 만들었다. 공동화장실을 사용했고, 마을을 지을 때 대형 물탱크를 만들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했다. 우물이 있었던 기억은 없다.

문래동에서 철거를 당하면서 20만원씩 이주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정일우 신부가 양평동에서 이주민을 모집했는데, 문래동에 있던 우리 집도 이주 신청을 했다. 이주민 공동체는 복음자리, 한독마을, 목화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복음자리는 처음에 입주한 단독주택과 2차로 지어진 연립주택을 합하여 모두 202세대다. 나중에 목화마을 105세대 지어졌고, 1985년에 한독마을 164세대가 입주했다.

▶ 학교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입주 당시 나는 고3이어서 서울에서 다니던 학교를 옮기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고교 시절엔 서울로 통학할 수밖에 없었다.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교통편도 경원여객이 운행하는 버스가 30분 정도에 한 대씩 있었다. 버스를 타고 부천으로 넘어가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통학했다. 하지만 당시 중학생들은 대부분 시흥지역으로 전학했고,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일부도 전학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근에 소래초등, 소래중학교가 유일했고, 후에 소래고등학교가 들어섰다.

▶ 주민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였는지요?

처음 이주했을 때는 소래면 소재지여서 일자리가 별로 없었다. 이주민들 대부분이 서울 변두리의 판자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거의 없고, 시흥에 와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노동을 하거나 허드렛일을 했다. 몇몇은 서울에 연고가 있어서 서울로 통근하기도 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시흥에서 주로 하루 일당을 받으며 노동과 농사일을 했다.

▶ 공동체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자리는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초기에는 마찰도 많았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사이에서 제정구 선생과 정일우 신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당시 나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그 분들을 ‘빨갱이다.’, ‘건축업자 아니냐.’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 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다. 일부는 그랬지만 그분들의 정신,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 이주민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시각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외부와의 마찰도 적지 않았다. 외부에서는 우리를 철거민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그래서 인근 마을인 신천동/은행동/미산동 등에 사는 청년들과 더러 시비가 일었다. 토박이들은 우리한테 ‘신고식 하라.’는 식이었다. 우리가 젊었으니 가장 많이 싸운 세대다. 서울 놈과 촌놈의 경쟁의식 같은 것이 있었다. 패싸움도 벌였는데 누가 맞고 오면 여러 명이 몰려가서 복수를 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경찰서에 몇 번 들락거린 적은 있지만 큰 사고는 없었다. 일종의 텃세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뿌리는 아직도 약간 존재하는 것 같다. 토착민들은 토박이의 개념을 소래초등학교와 소래중학교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다.

▶ 복음자리청년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나요?

복음자리청년회는 내 기억에 1977년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1978년 정도에 설립된 것으로 안다. 처음엔 청년회였다가 나중에 소래장청년회로 변경했다. 청년회는 복음자리 마을의 공동체 정신을 지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물론 제정구 선생과 정일우 신부님이 많은 역할을 했다. 그 분들은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외부와도 접복시켰다. 그 때문에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청년들을 지도해주었다. 이곳 청년들은 그 분들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았다. 나는 청년회 총무를 7년간 맡았다. 내가 총무로 있을 때 위성종 신협 이사장도 청년회 회장을 맡으셨다.

▶ 청년회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주로 봉사활동과 문화활동을 벌였는데 노래자랑대회와 체육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청년들의 공동체정신이 무척 강했다. 군대 가기 전까지 청년회 활동을 했다.

단오제를 주관하기도 했다. 군대에 다녀오고 난 후 복음자리청년회는 소래장청년회로 외연을 확대했다. 청년회를 주도하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장년

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신천성당을 통해 신천동과 은행동에 있는 분들까지 가입했다. 조직을 확대하면서 이름도 소래면의 이름 따서 소래장청년회로 바꾸었다.

▶ 협동조합을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요?

공동체 정신을 지켜가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구 선생이나 정일우 신부님이 한 발 앞서서 협동조합을 도입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시작했다.

처음 이주했을 때 이주민들의 생계 대책이 필요했다. 이주민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취약했고,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막걸리를 마시고 서로 싸움질을 하는 경우도 심했으며, 원망과 시비도 많았다. 이게 다 빈곤층의 삶이 짝짝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고, 특히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일자리 창출이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일이 렉스 토끼 조합이었다. 이후 우(소)협동조합, 판넬조합, 신용협동조합, 잼 공장을 조합원 형태로 시작했다.

제정구 선생은 젊은이들 중에 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자 맡기고 경험을 축적하도록 했다. 당시에는 20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이 일을 맡았다.

▶ 신용협동조합에서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나는 군에서 제대한 후 1982년에 신협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엔 건물도 없었다. 제정구 선생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는데 당시 제정구 선생의 동생인 제정원 신부가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입금을 받았다. 돈을 모아오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여 통장을 만들어주었다.

대부분의 사무는 박재천 선생(제정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내가 신협에 들어간 것도 박재천 선생의 권유 때문이었다. 나는 1987년까지 신협에서 일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수금을 다녔는데, 당시에 하루 수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였다.

신협은 1978년 5월 7일에 창립되었는데, 내가 근무하던 1987년에 1,000번째 조합원이 등록했다. 내가 입사하던 1982년에는 200여 명 이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근무할 때는 1,000명 조합원 의 이름을 전부 기억했다. 제정

구 선생은 4번, 내 아버지 김용욱은 7번, 나는 170번이었다. 이후 한독마을과 목화마을 이주민들이 가입하면서 1,000명으로 늘었다. 지금은 자산이 수백원에 달하고 조합원도 많으며, 이름도 경기시흥신탁으로 변경했다.

1987년까지만 해도 자산이 10억원이 되지 않았고, 그 중 부동산이 2억 원 정도였다. 신탁 건물을 건축할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신탁 부지는 구 작은자리회관 옆에 있었는데, 평당 70만원에 93평을 구입하여 6,300만원이 소요되었다. 구 신탁 건물은 1986년에 완공되었다. 부동산이 많으니 수익이 많을 리 없었다. 그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돈이 없어 조합원 총회가 열리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내가 입사하고 2년 뒤에 신 전무가 입사하고, 다시 2년 후에 황 상무가 입사했다.

▶ 작은자리회관에서의 경험을 얘기하신다면?

신탁에서 나온 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작은자리회관이 건립된 후에는 3년 정도 그곳에서 근무했다. 이 회관을 주로 청년들이 사용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빨갱이들의 모임 장소’라는 오해도 받았다. 청년회에서는 광덕물산 노조를 지원하고, 군포 등 인근지역에 있는 기업의 노조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따라서 회관은 주로 청년과 노조원들이 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했다. 지하 공간은 이들에게 대관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노조원들이나 진보적인 청년들이 갈 곳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작은자리회관은 천주교 인천교구 소속이라 일종의 성역 역할을 했다. 종교 자산이라서 경찰이 함부로 투입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월급을 30만원 정도 받았는데, 대관업무와 프로그램 준비, 문화활동 등으로 너무 바빴다. 그래서 박대식, 신미란 등과 함께 일했는데 이들에게 적으나마 임금을 주기 위해 차도 팔고 책도 빌려주는 사랑방을 운영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과 내 월급을 합쳐 세 사람이 함께 수입을 나눴다. 아마 20만 원 정도씩 되었을 것이다.

모두가 열심이었던 시절이었다. 회관에서 노조원을 교육시키고, 토론회도 열었으며, 문화행사와 풍물 교육을 진행했다. 현재 꼭두쇠 단장인 김원민도 함께 활동했다. 김원민은 신천동 성당에 다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중학교 때부터 풍물패에 열의를 가져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만장기를 들고 참여했다. 신탁 황 상무가 뺑가리를 잘 쳤고, 김형용은 장고를 잘 쳤다. 풍물패는

동네 행사에 대부분 참여했고, 서울에서 온 전문가나 대학생에게도 교육을 받았다.

▶ 신용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신협에서는 단오제와 이사장배 축구대회, 노래자랑대회를 시행했다. 신협 창립기념일 및 단오제로 출발한 이 행사는 집회 성격이 강했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운동단체, 노조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바자회를 열어 복음장학회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단오제 행사가 있는 날이면 경찰들이 진을 치고 지켜보았다. 혹시 시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단오제 행사 때는 씨름대회, 줄다리기 대회 등 각종 행사가 열렸는데 저녁에는 불꽃놀이도 진행했다. 또 청년회에는 연극반, 풍물반, 탈춤반 등이 있었는데 이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1980년대 초반에 단오제가 시작되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신일초등학교에서 진행되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이주민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신협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했고, 신천성당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바자회 행사에서는 외부에서 많은 물건들을 찬조했고 판매도 도와주었다. 행사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인근 주민들도 많이 구경왔다.

▶ 한독마을에서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장가를 가면서 한독마을로 이사했다. 당시 내 나이 31세였다. 복음자리에 머물던 정일우 신부님이 한독마을이 들어서자 몇몇 수녀님과 함께 한독마을로 이사했는데, 이주민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신부님과 수녀님이 머물던 숙소는 따로 있었는데, 당시 독일 재단 소유였다. 신부님은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자신이 머물던 집에 살라고 권유했다. 1천 만 원에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신부님은 상계동 철거민들을 위해 상계동으로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결국 나는 장기임대 형식으로 신부님이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는 조건이었다. 한독마을은 나중에 녹원아파트로 다시 지어졌는데, 집값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갚아나갔다. 내가 살던 집은 8평짜리였고, 방 하

나에 거실 겸 주방이 있었다. 한독마을은 1979년에 입주했다. 마을회관 가장 먼저 짓고 천막생활을 하면서 복음자리와 같은 방식으로 건축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주민들이 뭉쳐 힘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다. 당시 수인 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어린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인 산업도로는 인천이나 인근지역에서 고속도로로 가는 유일한 도로였기 때문에 원목을 실은 차량 등 화물차가 많이 다녔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주민들이 여기저기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정부기관에서는 사업도로가 준 고속도로라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당시 나는 작은자리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어 청년회를 중심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웠다. 청년회는 피켓을 준비하고, 복음자리, 한독, 목화 등 세 개 마을에서 주민들을 총동원했다. 목화마을 이주민들은 집회와 시위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정보과 형사들이 작은자리회관을 들락거릴 때였다.

청년회는 풍물패를 앞세우고 작은자리회관 입구와 산업도로 입구가 만나는 삼거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너 시간이 지나자 인천, 부천, 안산, 안양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마비되었다. 당시는 소래지역은 광명경찰서 관할이었는데, 차량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경찰서장만 오토바이를 타고 긴급출동했다. 시흥군수와 소래면장도 한걸음에 달려왔다.

협상 끝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각서를 쓰고 해산했다. 농성을 벌인 지 한 달 만에 복음자리 입구 삼거리에 첫 신호등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어 산업도로 여기저기에 많은 신호등이 생겼다. 우리는 잡혀갈 각오로 시작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 없었고 구속된 사람도 없었다. 정일우 신부님과 제정구 선생이 협상을 통해 구속이 되지 않도록 도왔다. 일부 정보과 형사들은 제정구 선생을 존경하기도 했고, 제정구 선생도 형사들에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었다. 이 때문에 어떤 형사는 좌천되기도 했다고 한다.

▶ 잼 공장에서 근무하던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결혼 후 작은자리회관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작은자리 일을 그만 둔 후 잠시 다른 일을 했지만 잘 안 되었다. 당시는 제정구 선생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시점이었다.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내게 잼 공장에 가서 일할 것을 권유했다.

잼 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복음자리에서 강정을 만들어 팔았다. 그때 청년들은 강정을 포장하면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재미가 있었다. 잼 공장이 생기면서 잼에 집중했다. 복음자리 마을 안에 큰 솔을 걸어놓은 공동작업장이 있었는데 마을 아주머니들이 잼을 만들고, 청년들은 주로 배달하는 일을 맡았다. 신부님과 수녀님들도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 딸기 철이 지나면 포도 잼을 만들었는데, 포도는 기간이 짧아 20일 정도 작업했다. 주민들에게는 좋은 일당 벌이었다. 잼 공장은 대야동으로 이사해서 1년 동안 있다가 안산공장으로 이전했다.

나는 선거 끝난 후 안산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논산에 새 공장이 지어하자 그곳에서 3년 정도 일했다. 논산공장을 지은 후 책임자로 일했는데 안산공장 전체가 이전하는 상황이 되자 그만두게 되었다. 아이가 중3이라서 이사하기가 쉽지 않았고, 주말마다 논산과 시흥을 오가기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잼 공장을 그만둔 후 중국으로 가서 일하다가 2년 전부터 화훼사업을 시작했다.

▶ 제정구 선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제정구 선생은 반체제인사로 낙인 찍혀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는 복음자리가 아주 유명했다. 단오제 등 문화행사가 끝나면 산업도로까지 스크럼을 짜고 진출하는 바람에 경찰들이 애를 먹었다. 이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의식화되었고, 사회문제에도 비로소 눈을 뜰 수 있었다. 청년들은 당시 사회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제정구 선생은 성격이 엄격하고 묵묵했는데 말이 아니라 표정으로 야단을 많이 쳤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찌다 던진 말 한 마디에서 묻어나오는 인간적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다.

짧고 굵게 살다 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분을 오해해서 아직

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분의 본질을 몰라서 생긴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분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 그 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겉모습과 소문만으로 판단한 것이다.

나에게는 정신적 지도자 같은 분이다. 그 분의 생각은 소외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천천히,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서울대를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과 왜 어울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혼자 잘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왜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 분 곁에 있으면서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도 그 분의 이상과 가치를 쫓고 마침내는 존경하게 되었다.

정일우 신부님은 따뜻한 분이였다. 한 사람이 드러누우면 딱 알맞은 방에 살았는데, 성격이 부드러워 모든 것을 수용하는 성격이였다. 엄격했던 제정구 선생과는 반대의 성품을 지녔는데 아마도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공동체를 이끄는 힘이었던 것 같다.

▶ 복음자리가 사라지고 공동체 정신도 희미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음자리가 초기부터 진행하던 사업 중 현재 남은 것은 신협뿐이다. 그나마 초기의 정신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조직이 아닌가 싶다. 현재 신협 이사장의 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판공비만 월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는 연봉만 1억원에 달하는 다른 신협과 다른 점이다. 위성종 이사장 스스로 판공비 올리는 것에 반대했다. 아름답게 퇴장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처음엔 판공비 7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성종 이사장이 다음 이사장을 고려하여 100만원으로 올렸지만 이사장을 연임하게 되었다. 이런 정신이 복음자리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청년회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고, 복음자리 공동체 정신과 가치를 후배 세대에게 전승시키지 못한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4) 신광표(전 복음자리 잼공장 대표, 58세)

- ▣ 인터뷰 일시 : 2012. 11. 05.
- ▣ 인터뷰 장소 : 초록세상지역아동센터(신천동)
- ▣ 인터뷰 내용 : 복음자리 마을

▶ 시흥에 이사 오신 게 언제인가요?

나는 1986년도에 이사 왔지요. 고향은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지금 나이가 57세이니깐 곧 58세가 됩니다. 시흥에 오기 전에 많이 돌아 다녔지. 뭐 부안에서 이리, 논산, 여수……. 직장 따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은 소금 유통 제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나 눈이 오면 바빠요. 염화칼슘을 공급해야 하니까. 1986년에 왔으니까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신천동에 이사 왔습니다. 신천동에서 부동산을 했어요.

▶ 시흥에 오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직장생활 하다가 개인 사업도 하다가…… 부동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처음엔 부안에 있었는데, 뭐가 좀 잘못 됐어.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기에 와 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부동산을 했어요. 친구가 여기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안에서 보험회사 소장이었는데, 시간이 남아 다른 일을 또 하나 하고 있었고……. 부동산도 하다보면 등기부등본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금융지식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같이 부동산을 하자고 해서 시흥에서 부동산을 하게 됐지요. 당시 여기 왔을 때 수인 산업도로가 4차선도 아니고 2차선이었지. 그땐 산업도로만 포장되었고, 안산 가는 길은 완전 비포장이었지.

▶ 복음자리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신천동 여기서 살다 보니까 복음자리 마을하고는 가깝게 지내게 되고. 그 때 당시 인연이 되었던 것이 소래장청년회를 통해서였어요. 초대 회장이 위성종 씨였는데 지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지요. 소래장청년회에 가입해서 청년 활동을 좀 하다가 복음장학회에도 가입이 되어서 그쪽도 활동을 좀 하

다가 제정구 의원님 하고 인연이 맺게 되어서 눌러앉게 되었죠.

▶ 제정구 의원의 비서 역할도 하셨지요?

예, 그랬지요. 제정구 의원님하고는 1993년도 초반에 만났어요. 제정구 의원님은 1992년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지. 제가 소래장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부동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알음알음 돼 가지고 제정구 의원 쪽에서 후원회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었어요. 그때 내가 부동산도 하고 있었고, 자동차보험도 하고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하고 있었어요. 제정구 의원 후원회는 정식 조직은 아니고 비공식 조직이었지요. 거기에 있으면서 비서 겸 후원회 일을 좀 봤지요. 비서란 게 정식 직함은 아니었고, 개인적인 비서 역할이었어요.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시민단체도 만들었어요. 시흥YMCA를 만든 게 1995년도였어요. 나하고 이상목이 주동을 했지요.

▶ 복음자리 마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복음자리에 계셨던 분들의 마인드가 좋았어요. 가난하게 살아도 정신은 훌륭했지요. 나는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그 분들과 자주 어울렸지요. 나는 복음자리 이주민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과 크게 차이를 느끼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어도 전혀 뭐 하등의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런 비교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 주택들은 새로 지었으니까 조금 환경이 나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쪽 동네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 어울려 사는 게 더 부러웠어요.

그때 당시 공동체라고 해봐야 향우회밖에 없었어요. 아마 향우회나 라이온스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자리마을 사람들은 달랐어요. 소래장청년회에는 복음자리마을 식구들, 목화마을 식구들, 한독마을 식구들이 주로 참여하셨고, 외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둘 정도 가입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신용협동조합하고 같이 복음단오제를 열기도 했어요. 당시만 해도 큰 행사였는데 청년들이 주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행사

를 진행했어요. 소래장청년회는 그 유명한 한국화약 매립 반대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기금 마련을 위해 노래자랑 대회도 같이 했어요. 복음자리 마을 공터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쓰였죠.

▶ 소래장청년회의 활동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주시죠.

소래장청년회는 제가 오기 전부터 구성돼 있었고, 저는 나중에 들어가 갔어요. 가입할 당시 회원이 한 30여명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활동을 중단했지요.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두 번의 공백기가 있는 거지요. 지금도 공백기지만. 시흥사랑모임이 있는데…… 청장년회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시흥사랑모임은 제정구 의원 돌아가시고 나서 결성한 거예요. 제정구 의원을 기리던 분들이 모여 발족했지요.

장청년회가 해체된 것은 보금자리마을에서 행사를 할 때 자꾸 민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개중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시끄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일초등학교로 옮겨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도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지원해주던 신험에서 그만두기로 했지요. 그러다보니 청년들의 역할도 사라지고, 또 어느 정도 나이도 먹어가고 그러니까 호지부지 된 거지요. 더구나 제정구 의원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구심점을 잃었지요.

단오제 행사가 열리면 주민들한테 상품 같은 선물들을 기증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소래읍내잖아요. 읍내에 나가서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뭐 쉽게 말해서 선풍기 하나도 받아오고, 뭐 장판가게에 가서 장판 까는 것도 받아오고, 사진관에서 촬영권도 받아오고, 가구점에서 장롱도 받아오고, 가전제품 가게에서 가전제품도 받아 왔지요. 알음알음으로 찾아 가서 기증품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약간의 풍파도 겪었지요.

단오제는 마을잔치라기보다 읍내 큰 잔치에 가까웠어요. 별도로 초청장을 보내진 않았지만 당시 포스터도 붙이고 플래카드도 걸었어요. 주로 삼미시장 앞이나 은행동 백제당약국 사거리, 산업도로 근방에 홍보물을 많이 붙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화동이나 군자동에서도 노래자랑에 오고 그랬지요. 음식도 소래장청년회 회원의 부인들이 음식코너를 만들어서 음식을 팔기도 했

어요. 수익금은 기금으로 내고요.

상품권 추첨이 많아서 인기가 좋았어요. 상품권이 백여 개는 되었으니까. JC에서 냉장고인가 세탁기인가도 협찬한 적이 있어요. 아쉽지만 단오제 행사가 없어지면서 청년회도 힘을 잃었어요. 청년회가 힘을 잃으니 단오제 행사도 다시 열기가 힘들고……. 잔치를 하려면 무대를 만들어야 했는데 청년들이 직접 제작을 했어요. 무대도 패널을 가지고 다 제작을 했고, 거기다 페인트칠 하고 현수막 걸어서 다 만들었어요. 밴드와 연주자만 불러왔지요. 그네를 설치한다든가 씨름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도 다 우리 손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정구 의원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갈수록 결속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이슈도 안 만들어졌어요. 또 행사를 할 때마다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재미도 없어졌지요. 그러다 보니 단오제 행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생각으로는 복음단오제 역사가 굉장히 길으니까 그걸 시에서 맡아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할 테니 시가 맡아 주기를 바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저희들이 얼굴을 내놓고 살지 않았어요.

복음자리 마을이 생기고 얼마 안 있다가 단오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찬히 역사가 길어요. 제정구 의원님 돌아가시고도 몇 년을 더 했는데 신일초등학교로 장소를 이전하면서 지역결속력이 더 없어지게 되었죠.

내가 청장년회에 가입한 것이 32세 때일 거예요. 나이 제한 같은 것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갈수록 나이제한 같은 건 할 수 없었어요. 장청년회가 처음에는 청년회였다가 나중에 소래장청년회로 바꾸었지요. 나이 먹는다고 제명시킬 수도 없었으니까.

제가 마지막 회장을 했어요. 제정구 의원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모든 걸 접고 직장생활을 하러 떠났지요. 안산에 있는 직장을 들어가다 보니 실무 역할을 할 사람도 거의 없었지요. 간부진이 다 직장에 얹매여 가지고…….

▶ 방금 말씀하신 안산의 직장이 복음자리 잼 공장이죠?

예. 제정구 의원님이 돌아가시고 1999년 3월에 바로 공장에 가게 됐지요.

잼 원료를 구입하러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요.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시골 구석구석에서 제정구 의원님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금자리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 회사 이름이 보금자리잖아요? 가서 농민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보금자리 얘기를 하다보면 제정구의원 얘기가 저절로 나왔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더 크게 보였어요. 저는 살아계실 때 직접 모시고 있었어도 그때는 그 양반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지요.

당시 보금자리가 공동체 사업으로 시작한 게 잼 공장이에요. 당시 정일우 신부님, 김영준, 박재천, 신명호, 제정구 의원님이 시작했지요. 당시 이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처음 시흥에 와 보니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객지로 나가서 일을 해야 했지요. 특히 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지요. 처음엔 솔단지를 걸어 놓고 주걱으로 저어서 만들었어요. 인천 답동 성당에 바자회 출품을 한 후에 한 군데 한 군데 거래를 늘려가면서 커진 거예요.

잼 공장에서는 유자의 경우 복음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자 표기를 시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 중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돼요. 최초인지는 검증된 것은 없지만 지금도 생산자 표기한 제품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유기농협회라든가 생산자, 회장 누구누구 외 몇 명 표기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넣었지요. 1999년도 아니면 2000년도부터 표기를 시작했던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도 자기 이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대처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 이름을 봤다 이거야. 그래서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우리하고 농산물 가격 협상을 하면서도 인식이 좋았지요.

농산물은 가격협상을 하면서 잔량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양만 가져오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농사가 한해는 잘됐다 한해는 안됐다 해도 적당량을 다 구입해 주면서 협력관계를 잘 맺었지요. 그 대신 양을 좀 늘리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조정을 잘 했었어요.

농민들이 주로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킬로그램 당 얼마씩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관계가 안 맺어지면 가격이 조금 높아질 때 딱 데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재배로 많은 양을 구입하는 방식을 구사했어요. 유기농협회는 저희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100% 쓰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자의 경우에는 일 년에 한 번씩 생산이 되는데 특수작물은 개인 투자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마트나 농민들도 그 내용을 압니다. 가격이 비싸졌다는 걸.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새것을 처음에 비싸게 사 옵니다. 유통은 의외로 쉬웠어요. 복음자리라는 브랜드와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만들 때 정말 엄마가 만든 것처럼 정성을 들였거든요. 저는 지금도 다른데서 만든 유자차는 안 먹습니다.

복음자리 브랜드 이미지가 그만큼 깊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지요. 사람들이 우리 잼 아니면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정성을 다해 만들기도 했지만,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좋았어요. 특별히 영업을 하지 않아도 각 성당에서 제품을 찾았고, 바이어들 도 고급품으로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잼이라는 것은 수작업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레시피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중에서 저희가 최적의 레시피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변함없이 레시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잼은 설탕하고 비율을 맞춰서 집에서 만들려고 해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기계화가 다 되었지만 사람이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 지금은 잼 공장이 청정원 브랜드를 가진 대상이 인수해서 경영하고 있죠?

잼 공장은 지분 정리가 다 되었어요. 처음 참여했던 분들이 외부로 다 나갔잖아요. 외부로 나가면서 지분을 팔아서 지금은 청정원을 경영하고 있는 대상에서 인수했어요. 로열티는 따로 받는 것이 없지만 아직도 복음자리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고가로 판매하고 있지요. 아직도 복음자리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팔아요. 그럴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높았고 우리를 작은 삼성이라고 했어요.

잼 공장을 정리할 때 제정구기념사업회나 작은자리 복지회관에 기증을 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인수할 수가 없었죠. 사실 잘못된 판단한 거죠. 세금이 많아도 인수해야지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사회복지법이 문제가 있는데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그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인수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결국 인수를 하지 않았지요.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워요.

2009년 3월에 대상에 공장을 넘겨주고 제가 퇴직했잖아요. 나머지 직원은 전부 인계하고 저만 빠져 나왔어요 대표이사는 인수할 수 없다고 해서. 당시 직원이 50여명 정도 되었고, 매출액도 연 200억이었으니까 무척 큰 회사였어요. 잼으로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요. 제가 입사할 때 매출이 15억에서 20억 정도였으니까 10년 만에 10배로 성장한 셈이지요.

초창기엔 투자지분대로 주주들한테 배분을 했는데 나중에 박재천, 신명호, 신부님도 빠져 나가고 제정구 의원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휴양할 집을 지을 돈이 필요해서 빠져 나갔어요. 처음에 시작한 제정구, 정일우, 김영준, 박재천, 신명호 외에 부부인 신재돈과 서미정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그 두 분이 인수한 거지요. 이 분들이 인수해서 열심히 키워 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신재돈 씨는 김광남 공장장하고 직접 잼을 만들었어요.

제가 공장에 가게 된 것은 제정구 의원님 때문이었어요. 의원님 돌아가시고 여기 저기 사람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다들 나름대로 다 나갔는데, 나하고 이근용 비서하고 두 사람만 공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나이 마흔 다섯이나 된 사람을 공장에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의원님이 저를 데려다 쓰라고 유언을 하신 거 같아요. 처음엔 고생 많았어요. 맨 처음에 직책을 안 주더라고요. 한 3개월 있다가 도망갈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문서 뒤져서 회사 상황을 파악하고, 젊은 친구 영업 나가면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보고서 작성을 하나 했지요. 그 당시 대리점 관리가 좀 미약했어요. 그런 부분을 보고서를 써서 체계를 잡고 대리점 관리를 제대로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과장을 시켜 주더라고요. 사장까지 올라가는 데 5~6년 걸렸습시다.

당시 논산에 공장을 지으려는 데 나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안산 공장을 팔아서 돈이 나왔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야. 더 크게 저야 하니까. 견적을 받아 보니까 800~900평 건물 짓는데 25억이 나오는 거야.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니 신이사가 가서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야. 견적만 여러 군데 받아놓고 망설이다가 짓기 시작했지. 10월 14일 시작해서 2월26일에 완공했는데 완전 벼락치기로 했지. 12억 들었어요. 반값으로

했지요. 그리고 나니까 상무 시켜 주더라고.

공장이 지어진 후 안산공장을 논산으로 다 이전했어요. 처음엔 논산과 안산에 공장 두 개를 운영했어요. 논산공장은 딸기가공 공장 옆에다 건물을 얻었지. 딸기 농사꾼들도 자기들 딸기를 가져다 쓰니까 좋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70억 매출을 올려주던 청정원이 갑자기 딸기 잼을 안 받겠다고 통보했어요. 큰일이 났지. 청정원에서 시장점유율 1위가 몇 개 안돼요. 고추장이 대표적인 제품이지. 그 외에 CJ하고 경쟁하는 게 잼인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논산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매출 70억이 줄면 큰일이잖아요. 두 개 공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80명이었어요.

다른 회사들은 잼을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을 뚫을 방법이 없었어요. 수출도 일부 해보려고 했지만 만만치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에서 다시 받겠다고 그러니 일을 포기할 수 없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번 위기가 있었어요. 1999년도 제가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IMF 후유증이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포도즙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포도를 왕창 사서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고생했죠.

그래서 청정원이 공장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결단을 내린 거였어요. 중소기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클레임이 중요하잖아요. 클레임 한번 들어오면 중소기업은 바로 망하는 겁니다.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대기업은 있잖아요.

▶ 마지막엔 대표이사까지 하셨는데, 나오시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아쉬웠지요. 하지만 큰 회사로 넘어갔으니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리고 직원들을 다 인수를 했으니까 직원들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못 팔게 방해할 하자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돈 모아서 사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그거 반대했어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 돈 가져와 지분 투자 해봐야 맘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2009년에 작은자리에서 받았으면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나름대로 회전은 되었을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세금은 분할납부하면 되고……. 아마 신명자 여사님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양반 손을 안 거친 게 없거든요. 실제로 부천원예조합에서 손수 물건을 사오고 직접 씻고

꼭지 따고 직접 잼을 만들었죠. 그 양반과 같은 애정이 없지요.

지금은 복음자리마음이 다 개발이 되었죠. 개발 당시 마을재건축위원회가 있었지요. 재건축 위원회 위원장이 나운영 씨였어요. 위원장도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신명자 여사와 백원우 의원이 애를 많이 썼지요. 그래서 개발규모가 크지 않는데도 LH가 참여했지요.

▶ 제정구 의원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나요?

투병 중일 때는 비서들이 당번 정해서 하루에 한사람씩 같이 지냈어요.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기는 했지만 저희들에게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편이었죠. 누구나 다 하는 얘기론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예요. 하지만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무서운 존재감을 가졌죠. 아마 복음자리에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인내를 배우셨을 거 같아요.

의원님하고는 후원회를 통해 일했기 때문에 평소 자주 접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의원님은 칭찬을 잘 안하는 분인데 한번은 후원의 밤 행사를 신라 뷔페에서 했는데 나를 불러내 칭찬을 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뒤통다꺼리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불러내서 마이크를 잡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 위에 이상목 보좌관이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비서들이 하는 얘기가 “의원님이 진짜 칭찬 안 하시는데 참 별일이다”라고 했어요.

의원님이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비서들을 다 데리고 지리산에 갔었어요. 지리산에 들어가 회의를 했는데 비서들은 전부 나가면 안 된다고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나가시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나가서 시원하게 다 풀어버렸으면 어땠을까……. 그게 1997년 대선 때였죠. 후보 등록하려면 예탁금이 5억인가 그랬는데, 그 돈만 있으면 내가 나가보겠다고 말했어요. 차 한 대만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반대한 거죠.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

3. 기록 수집

▣ 일러두기

- 이 목록에 수록된 자료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의 신명자 이사장, ‘작은 자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옥화 관장과의 수 차례에 걸친 인터뷰 과정에서 수집한 기관 소장자료로서 복사를 통해 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제공처에 반납하였다.
- 본 보고서에 수록한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단 자체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기관 소장 자료에 대한 최종적인 일반 공개 여부는 2013년 단행본 발간시 해당 기관 측과 세부협의를 거쳐 선별·결정할 예정이며, 본 보고서에는 목록에 파악된 수집 자료 중 일부만 수록하였음을 밝혀둔다.
- 자료의 명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로 묶어 구분하였다.

1)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복1-1	건축허가(증축신고) 처리 통보	소래읍 신천리 33번지 증축 신청에 대한 소래읍의 허가 공문서(소래읍→제정구)	1986.10.11.
복1-2	영수증서	1-1관련, 면허세 영수증 (취급자 : 윤현영)	1986.10.20.
복1-3	증축 등 신고서	1-1관련, 단면·평면도 첨부 (신청인 : 제정구)	1986.10. .
복1-4	[신고증 교부서]	1-1관련, 시흥군수 교부 (제86-25호)	1986.10.11.
복1-5	신청건축물 동별 개요	1-1관련, 건축물 개요서	
복1-6	[건물배치도, 단면도, 정면도, 측면도, 지적도, 안내도]	1-1관련, 첨부 도면	2매
복2-1	김수환씨 연립주택 신축공사 설계도(8평형)	평면도(1층, 2층) (삼정, 태을, 삼양, 건축설계)	1979.08. . 1매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북2-2	연립주택 신축공사(9평형)	2-1관련, 평면도(1층, 2층) (삼정, 태을, 삼양, 건축설계)	1979.08. . 1매
북2-3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은행리 건물배치도	2-1관련, 배치도(축척 1/300) (289-26, 293-3, 28-27번지)	1979. . . 1매
북3	'79 북음자리 주택(연립) 분양 계약서	9평형, 가동 101호 (갑 : 북음자리 대표(정일우 인장), 을 : 임○○ (인장))	1979.11.25.
북4-1	交換約定書	갑·을간 토지 교환을 위한 약정서 (갑 : 이○○, 을 : 제정구)	1979.06.22.
북4-2	측량 및 분할비용 관계 〈토지 교환 약정서〉	4-1관련, 사유지 비교표 (측량사무소 인장 있음)	
북5-1	존경하울 건설부 장관님 [진정서]	건설부의 북음자리 주택 철 거저시에 대한 진정서(개요 자료 첨부, 진정인 : 나길모, 정일우, 제정구)	1981.02.04. 3매
북5-2	개요	5-1관련, 별첨자료 별첨1. 개요설명 별첨2. 입주자 선정 계약서 별첨3. 용자상환방법 (8평·9평형) 별첨4. 분양계약서 별첨5. 실제시공평면도 별첨6. 건물배치도	
북6	공사도급계약서	“제2보금자리마을(가칭)” 건 설공사에 대한 토목·건축 공사 계약서(한독마을 건축 공사 계약서, 갑 : 제정구, 정일우, 을 : 황○○)	1979.06.25. 2매
북7	「木洞철거민」 내집마련 꿈實現	목화마을 입주 관련 신문기사 복사본	
북8	[서울지역 철거 현황]	서울 동부·서부·남부·북 부지역 각 구별 철거 현황	수기 작성 6매
북9-1	정관 초안	한국 천주교 빈민문제 연구소	3매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북9-2	빈민문제연구소	9-1관련, 조직, 사업계획을 적은 메모	수기 작성 2매
북10	재산세 이의 신청 결정 통보	결정서(4매)가 첨부된 공문서 (시흥군→제정구)	1987.10.30.
북11	창립총회	(가칭)두레장·청년회의 창립 회의(1986.04.20.) 자료 일시 : 1986.04.13.(일) 16:00 장소 : 작은자리 회관	1986.04.13. 16매
북12-1	인증서	동경아파트 건축 관련 약정 서에 대한 공증자료	1986.06.30. 4매
북12-2	공정증서	12-1관련, 약속어음 공정증 서(증서 제8204호)	1986-8204 4매
북12-3	공정증서	12-1관련, 약속어음 공정증 서(증서 제8205호)	1986-8205 6매
북13	천도빈 회원 명단	천주교 도시 빈민 사목 협 의회 명단 및 회의록	9쪽缺 16매
북14	추기경님 전 상서	제정구가 김수환 추기경에 게 보낸 친필 서한문	1986.11.27. 4매
북15	재개발 및 철거정책에 관한 호소	철거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제정구의 친필(추정) 논고	17매
북16-1	도시계획 도로변경 건의 회신	공문서(시흥군→김수환) 첨부 건의서 없음	1980.09.22.
북16-2	민원서류 이송	공문서(건설부→제정구) 첨부 공문 있음. 원 첨부물 (민원서류) 없음	1981.02.09.
북17	[A. Background]	영문으로 작성된 복음자리 개요문 일부	3매
북18	준공검사 필증 교부	공문서(소래읍→제정구) 소래읍 신천리 33번지 건축 물 준공검사필증 첨부(3매)	1986.12.08.
북19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귀하 존경하올 장관님 :	법무부장관에게 영문으로 쓴 정일우 신부의 강제 출 국 항의 서한 번역 요지	1986.07.24. 2매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복20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구성건축 회관 견적서 변경 前の 것]	수기 작성된 회관 신축공사 견적서(구성건축연구소 작 성)	1984.07.22. 35매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대본 「이 복음굿은 복음마을 청 년 피신들이 자작 꾸민 것임」 공연일 : 80. 12. 1(자 료 1면 설명 내용)	14매
복22	[목화마을 대출금액 상환 안 내표]		5매
복23	건축 설계 저작 계약서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32-1 외 6필지 (계약자 갑 : 김수 환, 을 : 이○○)	1977.05.18. 3매
복24	위험물 일반취급소 수압검사 합격통보	공문서(부천소방서→천주교 회유지재단), 필증 첨부	1984.11.19.
복25	위험물 일반취급소 완공검사 합격통보	공문서(부천소방서→천주교 회유지재단 나길모), 허가증 및 허가내용 첨부	1984.12.15
복26	[제정원 신부 수첩]	친필로 기록된 일지형태의 수첩(조사팀 복사자료 기준 69매), 1978.06~12. 수록	
복27-1	〈Rex 토끼 관계 모임〉	복음자리 토끼 사육을 위한 발기인 총회 준비 모임 관 련 자료	1980.11.27.
복27-2	《토끼 조합 발기인회 1차 모 임》, 《토끼 조합 발기인회 2차 모임》	27-1관련, 1차, 2차 추가 모 임 개요	1980.12.02. 1980.12.03.
복27-3	《발기인 총회》	(가칭)양토협동조합 발기인 총회 회의 내용 자료	1980.12.04. 4매
복28	영수증	대지 계약금 영수증(공○○, 이○○), 수기, 영수증 첨부	1985.05.11.
복29	영수증	대지 계약금 영수증(공○○, 이○○), 수기만 있음	1985.05.28.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북30	영수증	대지 계약금 영수증(공○○, 이○○), 수기만 있음	1985.06.20.
북31	위험물 취급자의 선임 신고서	소래읍 신천5리 91-4 (신고인 : 나길모, 취급자 : 이○○)	1984.12. .
북32	建設工事標準 都給契約書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계 약서(도급인 : 나길모, 수급인 : 이○○), 계약조건 포함	1984.08.16. 10매
북33	工事費 内譯書	작은자리 신축공사(담장공 사) 공사비 내역서	1984.11.30. 3매
북34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준공 전 입주에 대한 건축 법 위반(피고인 : 제정구), 범죄사실(별지) 첨부	1981.05.28.
북35	표제부 [등기부등본]	등기번호 제3196호, 소래읍 신천리 91-4	1983.11.28. 3매
북36	민원서류 이송	공문서(건설부→정일우) 첨부 공문 있음. 원 첨부물 (민원서류) 없음	1981.02.09.
북37	요청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요청 (김수환→시흥군수)	1983.01.21.
북38	現況實測圖	소래읍 신천리 32-5(1:1,200)	
북39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679-1번 지 등본 제1호	지적도 등본	1980.11.26.
북40	領收證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기 작성	1985.05.13.
북41	부동산매매계약서	소래읍 은행리276-1 (매도인 : 이○○, 공○○, 매수인 : 제정구)	1985.05.11.
북42	건축비를 해결하는 방법		
북43	계약서 9-21	복음자리 연립주택 입주계 약 체결(계약자 : 임○○)	1979.07.20.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북44	[목화마을]	목화마을 지가, 건축비, 주민부담, 복음자리 부담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북45	인감증명신청	김수환, 관공서 제출용	1986.11.24.
북46	토지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금액 조정권고	공문서(경기도→제정구, 공○○)	1985.05.28.
북47	[평균별 대출금액]	수기 작성된 대출금 한도액 표기 자료	1985년
북48	확인서	목동지구 세입자 임대아파트 입주계약 대상자 확인증 인수 확인서(8명분)	1985.08.13.
북49	현황측량도 사	소래읍 신천리 679-1,4,7,8번지(1:1,200)	1982.04. .
북50	지적도 등본 제2호	소래면 신천리 91-4번지(1:1,200)	1983.11.03.

2)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작1	사회복지 법인설립을 위한 안내		
작2	[법인설립을 위한 구비서류]	사회복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작3	접수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민원인 : 제정구)	1995.12.26.
작4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법인설립 관계서류)	3관련, 법인설립 신청서류 표지	
작5	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3관련, 표지	
작6	목록	3관련, 법인설립 신청서류 목록	
작7	설립취지서	3관련, 법인설립 취지서 내용	2매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작8	사회복지 법인 설립인(허)가 신청서	3관련, 복음자리 법인설립 신청서(임원명단 포함)	1995.12. . 2매
작9	회의록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관련 회의록	1995.11.25. 2매
작10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신천동 91-4에 대한 환지예정지조서(신청인 : 최수자)	1995.12.28.
작11	土地區劃整理換地豫定地圖面	발행번호 : 3745, 신천동 71블럭 3롯트 도면(1:1,200)	
작12	토지대장	신천동 91-4 토지대장 등본	1995.12.28. 2매
작13	[설명]	등기부 등본과 증여요청 면적의 차이에 대한 해명 관련 메모(수기 작성)	
작14	2. 정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정관 (3관련 추정, 법인인장 포함)	8매
작15	3.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증서 표지(3관련 추정)	
작16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15관련, 표1	
작17	설립당시의 임원명단	15관련, 표2,	
작18	무상 양도 승낙서	신천동 91-4에 대한 무상 양도 관련 서류	1995.11.28.
작19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표지(3관련 추정)	
작20	인감증명신청	신청인 : 나길모, 대리인 송명환	1995.10.16.
작21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지(3관련 추정)	
작22	표제부 [등기부 등본]	21관련, 신천동 91-4 등기부 등본	1996.01.06. 4매
작23	감정평가서	표지, 21관련	23~32번
작24	감정평가서	23관련, 신천동 91-4, 부천 1316-95	자료는 감정평가서
작25	(토지, 건물) 평가표	23관련, 평가의뢰인 : 나길모	1식으로
작26	평가의견서	23관련	판단됨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작27	토지·건물평가명세표	23관련, 신천동 91-4	23~32번 자료는 감정평가서 1식으로 판단됨
작28	건물평가요항표	23관련	
작29	토지평가요항표	23관련	
작30	위치도	23관련	
작31	지적 및 건물 개황도	23관련(1:500)	
작32	한국감정원 본·지점 점포망	감정평가서 첨부 안내자료	
작33	6. 재산수익조서	표지(3관련 추정)	
작34	보조금 지원 협약서	작은자리 주택조합에서 법 인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 급 협약(조합장 : 제정구)	1995.12.24.
작35	인증서	34 관련, 협약서에 대한 인 증서(동부 1995년 제4377호)	1995.12.26. 3매
작36	목화마을연립주택분양계약서	가동 1층 1호 계약서 (갑 : 제정구, 을 : 김○○)	1986.10.18.
작37	'86 목화마을 연립주택 용자 약정서	1동 1층 1호 갑 : 제정구, 을 : 김○○	1986.07.03.
작38	잔액증명서에 대한 설명		1995.12.26.
작39	인증서	38관련, 잔액증명서에 대한 인증서(동부 1995년 제4376호)	1995.12.26. 3매
작40	잔액증명서	최수자(2매)	1995.12.21.
작41	잔액증명서	윤동하	1995.12.21.
작42	후원회비 수익금 내역서	작은자리	1995.12. .
작43-1	7. 임원의 취임승락서	표지(3관련 추정)	
작43-2	임원취임승락서	복음자리 임원 10인 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995.11. . 20매
작43-3	이력서	43-2관련, 10인 이력서	1995.11.08. 11매
작44-1	8. 임원 상호간의 입증각서	표지(3관련 추정)	
작44-2	임원 상호간의 입증각서	44-1관련, 임원 10인의 각서	1995.12. . 10매
작45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정관	임원 10인 전원 인장 및 도지사 승인인(1996.01.27)	7매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작46	목화마을(지하주택) 입주약정서	3동 1호(입주약정자 : 이○ ○)	1995.07.30.
작47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통보	공문서(시흥시→제정구)	1996.01.31.
작48	「작은자리」 재산 증여의 건	공문(작은자리→천주교 인 천교구장)	1995.03.05.
작49	참고자료	48관련, 첨부자료(현재 작은 자리가 하고 있는 일, 앞으 로 하고자 하는 일)	
작50-1	정관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 회 유지재단 정관 사본	5매
작50-2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1995.12.01.
작51	작은자리 들여다 보기	작은자리 현황 자료 (작성자 : 최수자, ‘경기도청 사회계장에게 제출한 서류’ 라는 수기 메모 있음)	1996.01.22.
작52-1	기본재산 무상양도 인가	공문서(문화체육부→인천교 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이사 장) 유지재단 양도재산(신천 동 91-4)의 복음자리 무상양 도 인가	1996.01.03.
작52-2	증여계약서	신천동 91-4, (증여인 : 인천 교구 유지재단 나길모, 수 증인 : 사회복지법인 복음 자리 제정구)	1996.02. .
작52-3	위임장	52-2관련, 법무사 위임장	
작52-4	인감증명신청	52-2관련	
작53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등 기 신청서	1996.02. . 2매
작54-1	법인설립등기 완료보고서	공문서(복음자리→시흥시청)	1996.02.17.
작54-2	표제부 (등기부 등본)	54-1관련 등기부 등본	9매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작55	인감신고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인 감 신고서(이사장 : 제정구, 신고인 : 최수자)	1996.02. .
작56	[법인 등기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법 인 등기부(등기번호 : 373, 등록번호 : 135071-0003730)	4매
작57	이력서	신명자(복음자리 이사장)	

3) 복음신용협동조합

일련 번호	자료 명칭	주기사항	비고 (관련일자)
신1	복음신협	복음신협 소식지 1식 창간호(1986.06.06)~ 제35호 (1994.12.27)	전체 스캔
신2	사진첩	복음신협의 활동사진이 수 록된 사진첩 1식 5권	전체 스캔

79 복음자리 주택(연립) 분양 계약서

주택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은행리 289-1

연립주택(9 평형)

가 동

101 호

대지 : 공유지분



위 표시주택은 독립 전주교 주교단 살하기구에서 주선해준 서독정부의 지원금으로
철거된 및 두주택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협동정신 향상을 위하여 건립된 주택으로서 상
기 표시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천주교서울대교구를 대리하여 한국에수회 복음자리 대표
[정일우]를 "갑" (이하"갑"이라함) 위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피분양자를 "을" (이하
"을"이라함)로 하여 아래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갑)은 주택의 분양가격을 인금 2,700,000 원정으로 하여 (을)에게
분양하고 (을)은 입주금 및 용자금(갑)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은행에 납부
하여야 하며 용자금 상환조건은 별첨 방법에 따르기로 결정한다

단, ① 은행융자로 대치 가능한(은행융자로 대치시킬수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
의 동의를 얻어서 은행융자로 대치시킬수 있다)

② 별첨 표시 주택가격 이외에 화재보험료 (또는 화재보상료) 소유권이전
등기비, 근저당설립등기비는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③ 마을관리와 관리비는 주민들 자체로 처리한다

제 2조 ① (을)이 제1조에 정한 입주금을 기일내 납부지 않을 경우 (갑)은 본 분양계
약을 해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을)이 상의하여 처리한다

② 월부금 채납액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갑)에게 지불
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연체시에 연체료의 10%를 가산한다

제 3조 ① (갑)은 (을)이 제1조 소정의 입주금을 완납하였을때 건물준공 수속을 필한
후 (을)에게 소유권 보전 또는 이권등기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이에 소요
되는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1. 소유권이전에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써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때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손해
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갑)이 용자금을 계속 관리할 경우에는 용자금 완납후 소유권을 이
전기로 한다

② 본 계약상의 공유대지는 소유권 이전시에 전세비용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
지분으로 이전하고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구획표시)하지
아니하고 (을)은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
여 처분할수 없으며 공유지분 대지의 증감으로 주택가격은 변동되지 아니
한다

제 4조 (을)은 위 표시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수 없으며 동주택에 관한 권리를 침입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5조 ① 본 계약 체결후 발생하는 세세공과금과 수신충당금 및 공동설비에 필요한
제 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준공상태로 동주택을 인수하여야 하며 입주후 발생하는 수신유지
및 법령의 개정 또는 신설로 추가되는 시설투자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갑)의 지정기간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미입주에 따른 주택내부시설
의 훼손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6조 ① (을)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수 있다

1. 월부금을 6개월분 이상 채납하였을때

2. 위 표시주택을 양도, 임대, 전세, 사용대차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점유분
이전할때

3. 거주자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주택의 형상을 (갑)의 승인없이 변경(모
양변경, 또는 증축) 하였을때

4. 공동시설 또는 공유대지를 무단하게 점거 사용하였을때

5. 본 계약 이전에 이미 체결된 인차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때

6. (갑)의 지정기간내에 본인이 입주하여 않거나 입주후 법정기간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치 아니하였을때

7. 신청자와 입주자가 동일인이 아닐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였거
나 입주자격이 없음이 판명되었을때

8. (을)의 해약요구로 (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을때

② 전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위 표시주택을 즉시 명
도하여야 하며 또한 전 제1항 제 1.2.3.4.5.6.7.8호와 제2조 ①항에 의한
해약시에는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때 전2항의 위약금 및 원상복구비를 (을)의
기불입 입주금중에서 공제하고 반환할수 있다
단, 기납입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7조 입주인의 지연으로 인하여 유이 불가피하게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갑)(을)의
상호 합의하에 해약할수 있다

본 계약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1979년 11월 25일

(갑) 천주교 서울 대교구

한국에수회 복음자리 대표



(을) 서울 서도 관악구 신림동 675-4299 번지

성명 林

【복2-1】 복음자리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1979.11)

존경 하울 건설부 장관님.

정익종과 복지로의 전주복지 사회를 향한 새세대의 역사적 과업을 위하여 공무에 분방하실 장관님께 번거로움을 끼쳐 드림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정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저희의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끝까지 보아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침부한 자료에서 그 개요를 밝히겠습니다. 만 천거된 내지 부주관 영세민을 위한 주택 건설에 관한 일입니다. 이 일은 1979년 독일정부의 가톨릭 지원 부서인 CENTRALSTELLE에서 한국 천주교 인천교구 주관한 천거민 및 영세민의 이주 정착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초 상기 단체와의 계약은 이주민 정착 소재지 관계로

Project Holder: 인천교구 (주관) 주교. (주장: 미국)

Project Director: 정익종 신부 (주장: 미국, 한국예수회 소속 John V. Da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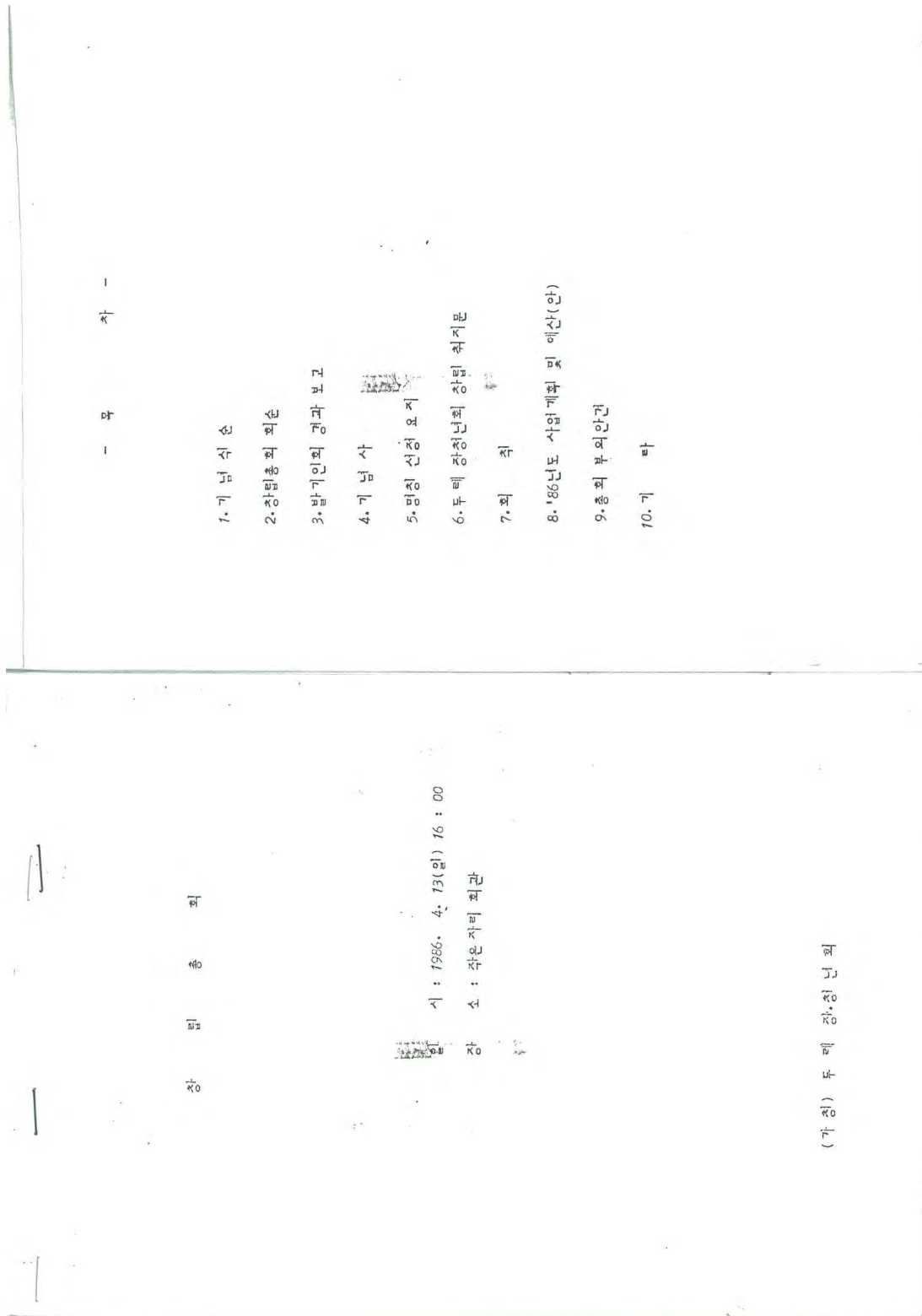
Project Manager: 제정구 등

3인이 되었으나 Project Holder가 외국인이란 관계로 이주자의 거의 전부가 서울시 관내로 주민등록으로 서울교구로 집중된 추기경님과 상의한 끝에 주택의 명의를 집중한 추기경님으로 하기로 결정했으나 개요의 설명과 같이 한사람의 명의로 할 경우

50세대가 넘어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비와 시간을 감안하여 2명 (전주교구장, 집중한 추기경 명의 46세대: 실제 입주자 92세대, 제정구 명의 36세대: 실제 입주자 72세대) 으로 나누어

CABLE: ARCHDIOCESE SEOUL

【복5-1】 제정구가 복음자리 철거와 관련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낸
진정서한(총3매)의 첫 장 (1981.02, 조사팀 사본)



【복11】 두레장·청년회 창립회의 자료의 표지와 목차 (1986.04, 조사팀 사본)

추기경님 전 상서

101

이번 여행에 별고 없으셨는지요.
직장 만나 보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추기경님의 바쁜
시간을 뺏는 것이 동구 스터의 중점을 못합니다.
아름 아니옵고 그동안 상계동 세입자들이 간이나 주위로
부터 오래 보는 자들이 있어서 그 점을 분명히 설명드릴까
함께 좀더 자세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물리니
고위 성려자께 건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계동 세입자들은 그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
돈이나 당이나 장 등을 당과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살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한 후에 철거를 하는 재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그들의 요구는 정당하 뿐만 아니라
자주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자리의 보장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합니다.

102

그러면 이 방안들은 전체 리어는 한 세 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번째 원리 :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하여 재 개발 함으로써 이익을
보게 되는 당사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원리 : 재개발 구간의 주민이 주거를 책임져야
하며 나아가 상계의 이익이 나누어 지도록
하는데 공적개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원리 : 세입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자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현재 현재 부담하고 있는
방값을 약간 상회하는 집 값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원리 하에서

제 1 안 :

가. 재개발 시 이 이 중 일부를 참여하여
세입자들에게 20년 이상의 상환조건으로
당분 제공하여

나. 장 부분은 세입자들에게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

【복14】 추기경님 전 상서 (1986.11, 조사팀 사본)

제정구가 복음자리 주택사업에 관해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낸 친필서한 일부(총4매)

A. Background

1. BOGUMJAHRI Team: Formation and Composition

At present, the BogumJahri team consists of 2 Jesuit priests, 2 St. Paul of Chartres Sisters, 4 married couples and their 9 children, and one unmarried young man. All of the married men, 3 of their wives, and one of the Jesuit priests have had the experience of living between 3 to 5 years in a slum and of having been evicted from a slum.

2. First resettlement village: BOGUMJAHRI / 1977

Paul Jei Jeong Ku and Fr. John V. Daly, S.J. moved into a slum area called Yang Pyeong Dong in western Seoul in December, 1975. When that area was evicted in April, 1977, 170 families signed up to move as a group to an area about 12 kilometers from the SW limits of Seoul. The people themselves did most of the construction work in building their homes. From this time on, Fr. Daly and Mr. and Mrs. Jei (and additional team members as they joined us) have lived in this village-- or the second village.

3. Second resettlement village: HanDokJuTaek / 1979

In 1979, our team members visited about 8 different slum areas scheduled for eviction and through a very detailed and lengthy process of education sessions, home visits, and screening, selected 164 families for the second resettlement village. Because of the construction law, the construction had to be done by a registered construction firm, so the people were able to participate only in the construction of a separate community center. From 1979 until the end of 1982, two St. Paul Sisters lived in this village; since 1982 (December) the Jesuit priests live here.

4. 1978 to 1983: Continued Efforts at Forming Community in the 2 villages

From the very beginning, we tried to make the selection process and the construction process ALSO a process of forming community.

In addition to that, from the time the first village was completed until around the end of 1982, our main efforts were concentrated on various activities within the two villages to continue and deepen the process of forming a human community.

These efforts included:

-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sewerage system, painting the houses and roofs, adding a veranda on to the houses, building a meeting place for the older people of the community, building a community center, paving the roads, construction a central water system) were deliberately delayed so as to have continuous projects which would make the people work together.

【복17】 영문으로 정리된 복음자리 사업 배경 (조사팀 사본)

복음자리 건설사업 관련, 서독 등 외국와의 교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임

「복음굿」

등장하는 사람

① 앞놀이 : 동네 농악대와 잡객들

② 제 1 과정 < 제사굿 >

무 상
제 1 부부
제 2 부부

③ 제 2 과정 < 촌극 및 무당 춤 >

제 1 부부
제 2 부부
동 직 원
도 깨 비 (절거반원 2명)
이웃동네 무당
제 1 부부
집 짓는 사람들

이 복음굿은 복음 마을
청년 피신들이
자작 꾸민 것임」

공연일 : 80. 12. 1

④ 제 3 과정 < 복음굿 탈춤 >

김 사장. 박 사장.
전 사장. 말 폭 이.

⑤ 뒷 놀이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표지 (1980.12. 1 공연, 조사팀 사본)

복음자리에서 공연한 복음굿의 시나리오

(지역성·시대성이 뚜렷하고 독특한 자료이므로 이하, 전문 수록함)

◎ 앞 풀 이 ◎

1/6 1

(동네 농악대들이 장단을 맞추면서 선두에 나옴과 뒤를 이어
잡색들 < 소고를 치는 부인네들과 춤 대원들, 그리고 일반 동네 사람들 >
이 따라오면서 놀이판을 한 바퀴 돌고 뒀을 그린 다음 뒤로 돌아
큰 절로 인사한다)

(이때 판을 형성한 다음 농악대에 맞춰 춤을 추고 마을사람들은
뒤로 물러난다)

◎ 제 1 과정 < 제사굿 >

무당 등장 : (무당이 나와서 빗자루로 제단리를 쓸고 제단에 큰절을 한다)

비는사람 등장 : (형성된 판에서 나와 제단앞에 선다)

무 당 : (한번 무당춤을 춘 다음 귀신들을 불러 모으다)

쉬 - 하면서

높을세라 소래대신 / 깎을세라 속호대신

넓을세라 방산대신 / 용기종기 드문대신

여기저기 은행대신 / 고개밑에 신천대신

물물세라 계관대신 / 씻을세라 대야대신

첩첩산중 미산대신 / 활짝달짝 복음대신

무리 모든 대신님들이 다들 모이신다

(신을 부른 다음 춤을 추고 비는사람앞으로 다가가는데 장단은 계속된다)

비는사람 1 :

비나이다 비나이다 / 대신님께 비나이다

소래편이 읊이되어 / 한판놀이 벌였으니

그잔있던 리각리각 / 모두몽땅 잊어먹고

오늘 열린 이놀이가 / 흥겨웁게 도와주소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01 (1980.12. 1 공연, 조사팀 사본)

(비는 사람 표에게)

162

얼굴 좋고 인심 좋다 / 소문소문 나더니와
소래사람 으뜸이라
너도 친구 나도 친구 / 오늘 하루 빌어보세

무 당 : 오냐 오냐 약소한 너의 정성 래산같이 받아 들여
잠깐 잠깐 놀다가마

(무당춤을 추다가)

여봐라 면민들아 / 오늘같이 좋은날은
싸움일랑 하지 말고 / 술주정은 하지마라

비는 사람 표 :

비나이다 비나이다 / 래신님께 비나이라
열성으로 일했건만 / 흉년이래 관식이오
내년에는 래풍되겄 / 두손모아 비나이라
들어가면 벼이삭이 / 주렁주렁 달리시고
산에 가면 초목들이 / 백백하게 들어서며
공장마다 기계소리 / 뚝뚝뚝뚝 들려오는
살기좋은 우리고장 / 만들도록 도와주소

무 당 : 오냐 오냐 걱정마라 약소한 너의 정성 래산같이
받아들여 한 읍민 한 동네로 화합토록 도와주고 내년에는
래풍되게 도와 주신단다 오늘같이 기쁜이날 굿거리로
놀아보자

(무당 선조는듯 춤추고 비는 사람 일다가 무당뒤를 따라
관 위로 나간다)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02 (1980.12. 1 공연, 조사팀 사본)

부부 I, II : (불림 받으며 좁은 노동무를 하고 판의 한쪽으로 이동하고
돈대에 제2부부 등장한다.)

제2부부(남편) : 여보시오 아 여보시오 내 말 들리질랑 나 좀
잠깐 봅시다 내 잠깐 보고 왔자니 무슨
공사를 하시나본데 지금 뭇하고 계십니까?

제1부부(남편) : 우리들 말씀이요 거 보시다시피 오갈데 없는
두리부부 떠돌이 생활 저치고 지쳐 이렇게 비탈진
죽에나마 집이나 짓고 살아볼려고 집을짓고 있는
중이외다

제2부부(남편) : 거 듣고보니 노형신세나 내신세나 비슷비슷하구려.
내 신세는 어떡한지 이내 신세처럼 한번 들어 보시
구려. 나는 일찌기 부러 피난을 겪으면서 안가
본곳 없이 다 가 났소이라만은 전장할 발붙일곳
도 제대로 없고 아저가보니 돈벌이가 안 된다,
저리가 보니 흉년이라 일컬으며 있는뎌는 등쳐먹고
아랫뎌는 사기치고 부자뎌는 땅 사놓고 있는뎌는
죽을지경 그러하니 배짱큰 이내뎌가 어디 가
소르와 살수 있겠소 아 - 그래 우리도 노형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다 예까지 오게 났소이다.

제1부부(남편) : 어허 듣고보니 안됐소이다.
이 근방 아무리 둘러봐도 늘러앉을 자리는 없을
거요. 세방사리 해보안을 주인뎌들 눈치나
보게 되니 어쩔소 - 무리 이곳에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집 짓고 사는것이.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03 (1980.12. 1 공연, 조사팀 사본)

제 2 부부 (남편) : 좋소이다 거 아주 좋은 생각이오 어딜간다
한들 이곳보다 난 곳이 어디 있겠소
우리 집을 합쳐 열심히 살아 봅시다

(제 1, 2 부부 완전히 집을 짓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춤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철거제고장을 들고 동직원이 등장하면서)

동 직 원 : 무당탕탕, 무당탕탕, 오늘은 내가 왕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술이나 쳐먹고 싸움질이나 하며
쓰레기는 이곳 저곳 아무곳에나 싸똥는 이 무식
하고 시꺼먼 판자촌들아,
오늘이 너희들 제사날인줄 알아라 하 - 묘놈들이
그래도 끝에 집은 짓고 산다고 라닥라닥 패지
움막같은 집을 지어 놓고 도시개발 좀먹으니 우리
어르신네께서 너희들 깎아버리고 이곳에다 나무심고
아스팔트 까란다 그러하니 너희들은 앞으로 5월
내로 자진철거 하랬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담배
값이라도 전질 것이니라

(동직원 춤을 추며 퇴장한다) - 갯저리 장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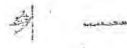
도깨비 1, 2 : (들어오면서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등장한다)

무당탕탕 무당탕탕 / 짹짹 " " 깨갱 " 와르르 광
에헤덜수 살판이야 / 도깨비 세상이렸다
씩하는놈들 눈가리고 / 어하는놈들 등쳐 먹고
도시정사 새마을로 / 무당탕탕 부셔나 먹자

⑥ 제 2 과정 < 한국 및 부당 잡 >

N. 5

(못거리 장단이 나오며 제 1 부부와 시골에서 상경한 모습으로 집을
뚝에 지고 주위를 두리번 깨리며 등장한다)

제 1 부부 (남편) : 

여보게들 기구한 이내 팔자 너두리 한번 들어 보시오
불쌍한 우리 부모가 장 몇조각 빌 불너서 농사라고 지어보니
웁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일년내내 피땀싸게 고생해야 내
지은 쌀 내먹기도 힘든니 아 - 어디 살겠소
비로값은 경쫓쫓고 쌀값은 똥 값에 흉년까지 드니
아 - 마음도 슬렁 슬렁 합디다
에라 완행벌차 몸에 싣고 서울이라 와보니 썩판 모른년이
손 잡고 쉬어 가라질 않나, 살구멍을 찾아봐두 반기는 몸
한몸이나 있나, 한달 넘게 헤메보네 아 - 이곳까지 왔소이다

(부인) : (총총걸음으로 달려가서)

아 - 영감 - 앞에는 개곳한 안양천이 있겠다
뒤에는 삼각산이 우뚝 솟아 있고 걸리적 거리는
사람들도 없으니 설마하니 여기가 시골만 못하겠소

(남편) :

임자말이 웬소 가난하고 갈곳없는 우리네 인생
이곳에서 지이나 짓고 한번 잘 살아 봅시다
자 슬슬 시작해 봅시다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05 (1980.12. 1 공연, 조사팀 사본)

도깨비 I : (도깨비 몸으로 빛을 표현서)

N. 6

신나고 신난다 또한 신난다. 어-하는놈 쪽머라
고생물 해를 자기집 없으니 신나고 신난다 소방도로
만들어서, 힘줄, 제멋대로 배먹고 뽕사는놈 들어서면
또 부시니 내 새장이라 어-하 어-하 함마종고 아하
어-하 하이바 송모니 힘이 힘이 절로난다 이쪽한번
저쪽한번 꿀밤팡팡 함마월에 넘어간다 넘어간다
네놈을 벽이 넘어간다 우-하-하-하

도깨비 II : 기쁘고 기쁘라 또한 기쁘다 꼬락지 같은 판자집을
도시미화 땅게되어 불-도저를 짹짹 밀어내고 아스팔트
나라니 신나고 신난다 자가용길 평탄하니 이것이
또한 기쁘구나

도깨비 I II : 어-하는놈들 배가속 씹고 어-하는놈들 등을 갈아
우당랑랑, 우당랑랑 신나게 부서나 먹자

(도깨비 신나게 춤추며 화장하고 곳거리 장단은 계속된다
이때 주민 1, 2 부부가 등장하며)

제 1 부부 (남편) :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나
비탈진 쪽방에 집이라고 지었더니 철거가 왜말이란
말이나. 잘못없는 우리네 신세 고생하며 살았건만
이제와서 철거라니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나
세이 더럽고 치사한 놈들아 잘쳐먹고 잘해봐라 우리
눈에 눈물나면 네놈들에선 피눈물 날 것이다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06 (1980.12. 1 공연, 조사팀 사본)

(호는끼는 몸짓으로 이를 가는 모습을 한다) 160?

제 2 부부 : 에이 - 이놈들아 집을 더 지어준다라고 미화작업
하라길래 죽어라고 집고쳐니 철거가 된 말이나
일년에 한번씩 땅세는 틀어 쳐먹고 서민 아파트
진다더니 여히해서 내쫓는나 어르신네 기침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단 말이나 로냐 가마 속시원히
떠나주마 이 신세가 언제나 내집짓고 살으려나
부디부디 도로내어 자가용라고 풍이나 났겨라

(제 1, 2 부부 이사 집을 꾸려매고 곳거리 장단에 맞춰 정처없이
떠난다)

(급기야 장도한 곳이 신천리 형이다 점을 풀어 놓으며)

제 1 부부 (남편) : 씨 —

아 그동안 고생을 망쳤네 이곳이 바로
신천리라는 곳이네

제 2 부부 (남편) :

허무한 세상 지나다 보니 어느덧 예까지 오게
됐구려 철은 봄철이라 별나비 나르고 이곳저곳
둘러보니 과일나무는 짝이 들고 아 - 공기도 좋고
살만한 곳이로군, 여덟소 우리 한쪽에 자리잡아
복음자리 지어보지 않겠소

제 1, 2 부부 합창 : 종소 어서 시작 합시다

(덜덜쿵 타령으로 질 깃기 시작한다)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07 (1980.12. 1 공연, 조사팀 사본)

No 8

불림 - < 쉬 - 옛까지 고생하며 왔으니 몸기 좋은 이령에 복음자리
지어보세 >

< 지어보세 지어보세 >

(덩더쿵 타격으로 집짓는 과정
땅파기춤, 벽돌쌓는춤, 대장춤, 리어커춤, 상량식춤,
기와놓는춤을 한다)

불림 - < 쉬 - 이렇게 집을 다 지었으니 돌아나 보세 >
(패지나 칭칭 타격과 뚫거리 타격으로 한바탕 춤을 춘다)

고생 끝에	낙이온다	패지나 칭칭 나네
떠날 때는	처량러니	"
땅을파고	벽돌쌓아	"
이렇게저렇게	집을짓네	"
보아하니	훌륭하대	"
얼사말사	얼사종고	"
이렇게저	기쁜이날	"
한바탕	돌아보세	"

(빠른 타격으로 갖가지 춤을 추며 한바탕 춘다)

불림 - < 쉬 - 무라 이렇게 놀았으니 열심히 살 궁리나 하세 >

(한쪽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중에 옆등네 무당과 옆동네 북부도
이 등장한다)

무 랑 : (한번 무당춤을 추고서 귀신들을 불러 모은다)

쉬 - 어허 하면서

무 단 : 눈물세라 소래대신 / 잔물세라 수호대신
 뉘를세라 방산대신 / 용기종기 드문대신
 저기저기 은행대신 / 고개말에 신천대신
 울물세라 계란대신 / 씻을세라 대야대신
 철첩산중 미산대신 / 활각달락 복음대신
 우리 모든 대신님들이 라들 모여신라

(신을 부른 파음 춤을 추고 비는 사람 앞으로 다가가는데 창단은 계속 된다)

옆동네1부부 (남편) :

비나이다 비나이다 / 대신님께 비나이다
 늙은 늬 끝북에서 / 늙은 옷 정신없고
 유 부녀 밭에나가 / 손발이 부르르고
 젊은 늬 술집에서 / 술타령 세월가고
 내 동네 본받을까 / 무슨히 겁이나네
 저 동네 뭉쓸동네 / 없어지게 도와주소

옆동네1부부 (부인) :

어느덧 과일은 / 뻔정게 무르익어
 복음자리 아이들 / 과일에 손을래니
 내 재산 죽이날까 / 두렵고 두렵소다
 과일에 손댄놈들 / 손이나 부러져서
 병신되게 도와주소

무 단 : 오냐 오냐 걱정 마라 너의 정성 재산같이
 받아들여 소원 성취 들어주마

(무당은 춤을 추고 비는사람은 계속 빈다)
(이때 복음자리 주민 불쑥 뛰어 나오면서)

No 10

불 림 - < 쉬 - 야 이놈들아 >

주 민 : 팔세하지마라 이놈들아 지금 네놈들이 하는것을보니
우리를 목하는 모양인데 네놈들은 뭐 그리 잘났드냐
네놈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서민끼리 어찌목을 함부로
한단 말이나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잘
사는 고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소
자 ! 우리 서로 도우며 살도록 같이 한번 돌아나 보세
(등장인들 모두 춤을 추며 2과정이 끝난다)

◎ 제 3 과 점 < 복음굿, 활춤 >

(극절이 장단에 맞춰 김사장, 정사장, 박사장이 등장한다)

김 사장 (기업주 1) :

사장님네들 그간들 안녕들 하셨습니까 ?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정 사장 (투기업자) :

동안 이내몸은 사채들이 재미붙여 비싼이자 뜯어내고

쓸만한집 차입붙여 내재산을 만들었소

박 사장 (기업주 2) :

어-허 그것도 돈 벌었다고 하는거요 가소롭소이다.

내 공장에선 30일을 20일작정으로 단축시켜 철야근무

시켜놓나 깎배기로 수입을 배로올려 산너머에 깡

사놓고 2억짜리 별장짓고 마누라가 셋이라오

그래 김사장은 어찌 지냈소이까 ?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10 (1980.12. 1 공연, 조사팀 사본)

김 사 장 : (거담주교)

11/11

아 - 나쁜 몸장이전확장을 하다보니 공원은 새야
겔고 문은 아깝다보니 철야근무 시키다가 공원이
피로하여 잠시 풀다 일하다가 시퍼런 절단기에
손가락을 툇툇잘려 한계에 그만원씩 값을 치루어
마무리 짓고 보혈금을 내가타니 쥔 먹고 알 먹고
하니 어찌 내배가 삼겹살이 아니겠소
허 - 허 - 허 - 허 -

정 사 장 :

자 라들 양심이고 인접이고 몰질하고 돈벌었으
우리 말죽이나 데려다가 불탕이나 맥업시다

(곳저리장단 양반춤으로 편을 한바퀴 돌며 말죽이를 부른다)

김 사 장 : 예 - 아 말죽이

말 죽 이 : 예 - 이 그저 줄어니 모아서서 말죽인지 쇠죽인
방구석에 매주달듯이 몸살놈의 첩부르듯이
그저 말죽아 - 말죽아 -

김 사 장 : 쇠 - 처런 죽월놈 있나 기껏해야 공원으로서
사장님들 모욕하니 그 어찌 해고당하기를 안달이 나서
자처하는 소리가 아니겠느냐

말 죽 이 : 아 하 이놈들아 너희들이 사장이라 자람을
하니 어디 사장근본을 들어보자

김 사 장 : 이놈 네가 공원으로서 사장근본을 알아
무엇하랴.

【복21】 복음굿 시나리오 11 (1980.12. 1 공연, 조사팀 사본)

말 독 이 : 예라 씨불놈아 내 그걸줄 알았다 16/12
 네가 너희 공장에서 일해온지 수십년을 했는데 너희
 들의 속셈을 모를쏘냐 내가 밀러줄려이니 자세히
 들으라 사장이라 함은 사기사자에 두목장자로 사장을
 일컬어 사기관 두목이라 함이라 김사장 널루두고 말하면
 너는 기계가 30저나 되면서 공원은 20명이라 모든
 기계 돌리다 보니 철야명단 계속 몰라 불쌍한 우리공원
 절단기에 손이절려 담배값에 입을 막고 보험금을 팔
 세하네 배때기가 어찌 삼겹살이 아니겠느냐 그러하니
 네가 무슨 사장이냐 도둑놈이지!

김 사 장 : 예끼 이놈

말 독 이 : 그리고 너 점사장 너로 말할것 같으면 동네
 에 신음조합이 있는데도 비싼 할라 놀이 하고 주민들의
 피를 빠니 어찌 네가 사장이냐 돈벌레 사기관이지

정 사 장 : 씨끼 이놈

말 독 이 : 그리고 너 박사장 너를 두고 말할것 같으면
 불쌍한 우리 공원 철야근무 시켜놓고 나오는 이익금을
 너 혼자 가로채어 2억짜리 별장짓고 첩들이 셋씩
 이니 네가 무슨 사장이냐 돼지같은 점승이지

박 사 장 : 씨끼 이놈 죽일놈 같으니

김 사 장 : 저 말독이놈 말하는것좀 보소 오늘 기분이
 썩 좋지 않으나 우리 단골집 아가씨와 술이나 푸러가세

(사장 컷거리 장단으로 퇴장한다)

말 똑 이 : 어-허. 기분 좋다

사장들이 개가되고 말죽이 사람되니

이 어찌 안 기쁠소냐

신나게 춤이나 추어보세

말 똑 이 : 불 립 (가소롭다 손님들아 이제보너 개로쿠나)

(말죽이 복중 춤으로 외사위 돌입려 모든 등장인물
주민들 함께 춤 추다 퇴장으로 이어진다)

㉠ 뒷 풀 이 ㉡

(음악대가 선두에서 증열을 정비하고 판을 돌면서 전과정이

끝난다. 이때 모든 잡색들이 회를 이은다)

- 끝 -

수원지방법원

주거용 9240

약식명령

사건

87 교약 4457 건축법위반

제정 구() 학생

1981. 5. 15

경기 수원군 소래읍

경남 고성군 대가면

주행과 부수채권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 원에 처한다.

위 금액을 납부치 않을시

2,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다.

별지와 같음

법리사실

처용법조

건축법 제53조 1호 제7호 제3항 벌금형(신규) 형법 제70조,

동 제9조 2항, 양사소송법 제331조 1항.

검사 또는 피고인

청구할수 있다.

은 이 명령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7일안에 정식 재판을

19 81. 5 1981. 5. 15

판사 양

피의자는 판정인바,
1979. 8. 03일 수원군수로 수역 경기도 수원군 조배면
은음리 285-26, 273-3 호에 인접주택6동 82세대(15평형
2동 26세대, 16평형 4동 56세대)를 허가번호 7406.7421호
허가를 받아 이를 분동 건축하여 서울 지영동
164세대를 신영 준공서를 필하지 아니하고 사영입주
시킨 것이다.

등본이다
19 수천 지방 법원
법원사무관 장

반금음 수천 지방 법원에
납부하여 주시 바랍니다

【복34】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1981.05)

복음자리 건설 관련, 사업 준공 전에 이주민들을 선입주시킨 사실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제정구에게 처분한 벌금형 약식명령서

(별지8호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전몰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76-1
면적	6610㎡
전몰	
전몰구조 및 용도	

제1조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기로 함

대금 총액	한천원	원정	₩30,000,000
계약금	한천원	원정	₩3,000,000
중도금	한천원	원정	₩3,000,000
잔액금	한천원	원정	₩24,000,000

제2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에 필요한 수속 서류를 관급과 상환하여야 함

제3조 가옥명도는 1985년 6월 20일 명도하기로 함

제4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위 자조항을 입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4등복사 작성하여 매매 당사자용, 매대신고용, 업소 보관용, P를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매수인 정정은 이를 불허함

단 위약상비 과징금 및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계약금 반환을 시정하지 않으면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중도금 지불과 동시에 잔금공사를 완료한다.
매수인이 위약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인 정정 씨가 상환하여야 하는 매도금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인 정정 씨가 부담한다.

매도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76-10	번지	10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02-1234-5678)
매수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76-10	가	10
	주민등록번호:	(전화	02-1234-5678)
중개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76-10	상호	정정 씨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02-1234-5678)

【복41】 목화연립 부동산매매계약서 (1985.05)

목 화 마 을 연 립 주 택 분 양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1. 소 제 지 :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은행리 276- /

1. 주 택 명 : 목화마을 연립주택 가 동 / 층 / 호

1. 분양면적 : 55.35 m²

1. 대지면적 : 144.866 m²

상기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지하싹 면적은 밍도 이므로 분양하지 않음.

제 1 조 :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태와 같은 내용으로 "갑" "을" 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 분양 총액은 원금 1,000,000원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구 분	금 액	납 부 일
계 약 금	1,000,000원	
입 주 금	1,000,000원	합계서 납부
주택조합금	1,000,000원	
은행용자금	1,000,000원	

제 3 조 : "을" 은 "갑" 에게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공부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을" 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접수를 해야 하며 만약 "을" 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 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손해는 "을" 이 부담한다.

제 4 조 : 전매금지(1) "을" 은 위 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타인에게 전매(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와 변동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여 상속, 저당외 경우는 제외한다) 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갑" 의 동의없이 전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의한 전매금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과 "갑" 의 업무규정에 의거 "갑" 이 신청하는 가격으로 "갑" 은 타인에게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3) 제1항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는 경우에는 "갑" 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과 "갑" 의 업무규정에 의거 "갑" 이 신청하는 가격으로 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제 5 조 : 본 계약내용 이외의 사항은 "갑" "을" 상호 간에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만약 "갑"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는 "갑" 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1986년 10월 10일

"갑" 주 소 :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33

상 호 : 작은자리 주택조합

성 명 : 조 합 장 제 정 구

주민등록번호 : 11-111111-111111

"을" 주 소 :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은행리 276- / 빈지

성 명 : 이 문 : 이

주민등록번호 : 11-111111-111111

【작36】 목화마을 연립주택 분양계약서 (1986.10, 조사팀 사본)

- '86 목화마을 연립주택 용자약정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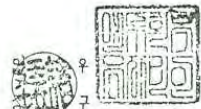
본 약정은 외국 천주교 인간개발 단체에서 주선해 준 지원금과 국내 천주교 단체에서 마련해 준 지원금으로 서울 강서구 무동지구 천거민들의 생활안전과 협동, 자립정신 양상을 위해서 건립된 목화마을 연립주택에 대하여, 한국 천주교 인천교구내 특수사목 부용자리 공동대표 「장 율호」 「제, 정근」 을 「갑」 (이하 「갑」이라 함), 위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입주하고 용자받는 자를 「을」 (이하 「을」이라 함)로 하여 아래 과 조항과 같이 '86 목화마을 연립주택 용자약정을 체결한다.

- 제 1조 (적용 원칙) 본 약정은 36세대의 정부 국민주택 용자금과 69세대의 한국주택은행 용자금을 제외하고 한국 천주교 인천교구내 특수사목 부용자리 사무실이 지구하는 용자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 2조 (용자금 액) 일금 武田正人 2,488,400 원
- 제 3조 (용자기한) 용자기한은 1986년 8월 7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 20년으로 한다.
- 제 4조 (상환방법) 상환조건은 1년 기치 19년 상환으로 하여 발표의 방법에 의해 상환하고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 제 5조 (이자, 연체이자) 이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년 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하고, 제4조의 약정대로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라 「을」은 년 6%의 연체이자를 지불한다.
- 제 6조 (이율의 변경) 「갑」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을」은 전조에 명시된 이율에 관계없이 아무 이율을 제기하지 않고 변경된 이율에 의해 이자를 지불한다.
- 제 7조 (상환장소 지정) 「을」은 이를 상환함에 있어서 「갑」이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환한다.
- 제 8조 (기한의 이익상실) 「을」은 다음 과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으로부터의 통지, 회고등이 없더라도 「갑」에 대한 모든 용자와 기한외 이익을-당연히 상실하며 용자액을 즉시 변제한다.
- (1) 제3자로부터 담보를 또는 「을」 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파의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2) 조세 공과금을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 (3) 「갑」에 대한 용자와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 (4) 「을」이 「갑」과외 모든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한 때.
 - (5) 기타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 9조 (담 보) ① 「을」은 「갑」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 동 / 증 / 호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며 근적당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 ② 담보물건에 대하여는 「갑」 외 승인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 불권취실권, 항매의 변경, 부속 건물외 시설 담보물에 부속하는 건물에 장애 증축등 「갑」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갑」 외 승인하에 부속 건물물 증축신설하는 경우 바로 이를 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 등기한다.
- 제 10조 (비용 부담) 「을」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 또는 담보의 추심이나 처분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 제 11조 (적용 일) 이 약정은 입주시기와 관계없이 '86. 8. 1일부터 적용한다.
- 제 12조 (공 증) 이를 증하기 위하여 공증키로 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서 기 1986년 7월 3일

(갑) 한국 천주교 인천교구내 특수사목 부용자리 공동대표

장 제



(을)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은행리 296-1번지 / 동 / 증 / 호

성 명 기

【작37】 '86 목화마을 연립주택 용자약정서 (1986.07)

창립 4주년 기념 특집 창간호 발행

창간호 기념사

이사장 제정구

복음신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신협이 이렇게까지 자라게 된것을 기뻐하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입이 작아서 그랬는지, 하느님나라가 겨자씨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조그만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싹어서 싹을 내면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온갖 새들이 날아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권세도 높고 짐승처럼 힘도 세고 뱀처럼 제주도 많아 제 혼자 힘으로도 아식온것 없이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커다란 씨가 아니라 도무지 혼자서는 제대로 서기조차 힘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며 그래서 남의것을 뜯어낼 생각도 없거니와 그럴힘도 없고 무슨일이나 번지르르하고 미끈하게 해 보여줄 제주도, 돈도 없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저 고맙기만하고 그래서 뭇이던지 남에게 고마운것을 해주고 싶은 조그만 겨자씨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때 신용협동조합은 엉뚱없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 복음신협 가족들을 보면 겨자씨가 틈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단 하나 메사이고 마워하는 마음이 조라는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 같이 좀더 고마워 할 줄만 안다면 우리 신협은 엉뚱없는 하느님 나라가 될텐데. ... 오늘 우리들의 조그만 입을 열어 놓았습니다. 조그만 입을 통해 조그만 맘을 속삭이므로서 천둥같은 고마움을 느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조그만 겨자씨를 인젠가는 많은 증생들이 실수있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거름은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가꾸어 봅시다. 우리 신협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것으로 창간사를 마칩니다.

복음신협

발행인: 제정구

편집: 홍보 위원회

발행처: 복음신협협동조합

주 소: 경기.시흥소래

신천 5리 33

발행일: 1981, 6, 6

입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신협운동의 3대

과 제

-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 사회를 밝히는

교육운동

-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



창립 4주년 기념 행사

기념일: 1981.6.6. 기념행사: 기념식, 끼임, 농악길놀이



【신1】복음신협 소식지 창간호 (1981.06)

양식

무춤과 감사심

이사장 제정구

저는 6~7년 전부터 심한 무춤으로 어떤 때는 절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었으며 여러가지 약도 많이 써 왔으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어느날 정신없이 밭을 갈고 있다가 시냇가로 신경질나게 가려운 무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가지의 실패감과 좌절감 등으로 짓눌려 있는 나의 마음 상태가 무춤을 박박 긁어 버림으로 풀려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만약 내게 무춤이 없었다면 짓눌린 이 마음은 나의 몸 중요한 어느 부분에 불치의 병이나 치명적인 병을 일으켜 나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진실로 나를 괴롭히는 무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으며 "내가 나를 살려왔구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부터 점점 무춤이 없어지기 시작하여 금년에는 무춤이 있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안 일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우리 몸속에는 병균을 죽일 수 있는 액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우리들의 기관지에서 독장생의 액체가 나오는데 1분동안 흘러나온 액체로 쥐 수 백마리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화병이 났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액체가 우리들의 심장과 간장을 해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의 무춤에서처럼 똑같은 사실이라도 이렇게 보면 화나는 것이 되고 저렇게 보면 감사한 것이 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화를 낼 때는 몸을 꾸부리고 땅을 보게 되고 감사할 때는 하늘을 향하여 곧추 서 있을 경우가 많습니 다. 비록 오늘날의 삶이 역겨움과 지겨움이라도 화를 내며 땅을 굴러기 보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 감사한 마음이 몇속까지 스며들고 새로운 힘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펼쳐 올라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곧추서는 삶을 살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조합창립 4주년 단오제

— 제 1회 이사장기 정탈 지역 친선 축구 대회도 —

올해로 우리 신협은 창립 4주년을 맞이했다. 매년 단오날을 창립기념 행사로 지내온 조합은 지난 6월6일 마을에서 기념식, 농악, 진놀이, 각 연립별 달리기, 청년 마라톤, 장년 세름대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제정구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작은 겨자씨 같은 조합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지금의 조합을 이룩했다고 말하였다.

특별히 기념식에는 아시아 신협연합회 강정열 사무국장 내외께서 참석하여 축사를 하셨으며 지역 기관장과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오제의 기쁨을 함께 하였다.

절망의 모퉁이에서 삶의 자리를 마련한 전조합원과 마을 주민들은 지난날의 실움과 어려움을 단오제를 통하여 그 한을 풀고 다시 한번 조합의 발전을 다짐했다. 아울러 이제 조합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개발에 힘을 다하기 위하여 첫 사업으로 이사장기 정탈 직장 및 리태향 친선축구대회를 거행하였다.

막사이사이상 수상

— 강정열 사무국장 —

아시아 신협연합회 강정열 사무국장이 금년도 「라몬 막사이사이」상 국제이해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31일 필리핀 마닐라 시상식에서 상금과 함께 기념메달을 수여받았다. 이는 한국 신협운동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고 전신협인의 기쁨이다. 더욱이 강정열 사무국장은 우리 신협의 창립 당시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다. 끊임없이 본 조합에 관심하시는 사무국장님께 전 조합원과 함께 축하를 드린다.

막사이사이 상이란?

「막사이사이상」이란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고 「라몬 막사이사이」(1901~1957)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한 상.

대 차 대 조 표

1981. 9. 30 현재

계	정	금	액	계	정	금	액
현	금	5,523,214		보통예탁금		9,729,829	
적금대부금		300,000		정기예탁금		222,590	
보통대부금		39,073,000		신용적금		7,174,600	
진급대부금		400,000		출자금		23,058,417	
범위내대부금		1,236,000		법정적립금		559,448	
				특별적립금		782,210	
				임의적립금		556,840	
				지역개발투자금		440,232	
				이월잉여금		317,669	
				미처분잉여금		2,838	
				순이익금		3,687,541	
계		46,532,214		계		46,532,214,	

복음신협

발행인: 제 정 구

편 집: 홍보위원회

인쇄: 개마서원

발행처

복음신협동조합

150-72

경기도시흥군소매읍

신천5리33

전화: 62-9307

신협운동의

3대과제

1.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2.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3.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4.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5.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6.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7.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8.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9.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0.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1.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2.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3.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4.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5.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6.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7.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8.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19.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20. 사회를 위한 경제운동

경

제34차 국제신협의 날
1981년 10월 15일

축

복음신협

발행인 : 심 병 현

편집 : 홍보위원회

발행처 : 복음신용협동조합 (재무부인가 3-126)

150-72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신천 5리33

전화 : 64-6391

인쇄 : 동양사 ☎ 776-8065

어버이날 경로잔치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우리 신협은 동네의 할아버지·할머니들께 감사하는 뜻으로 경로 잔치를 열었다. 잔치가 벌어진 복음유아원에는 낮 12시부터 한독주택과 복음자리의 할아버지·할머니 60여 분이 사이좋게 자리를 잡고 정성스레 마련된 술과 음식을 들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셨다. 한 쪽 벽에는 “할아버지·할머니 오래 오래 사세요”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고, 부녀회원과 청년들은 따끈한 국과 찌개를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점차 흥이 오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마다 ‘소리 한 마디’씩 하기를 잊지 않았고, 청년들이 치는 쟁과리, 장구 가락에 흥겨운 어깨춤이 어우러졌다. 특히 멀리서 노인들을 모시고 온 한독주택의 젊은 임원진까지 합세하여, 노소가 없는 놀이관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를 기르느라 고생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

제 2 차 임직원 · 위원 간담회 개최

올해로 창립 다섯 뒀을 맞은 우리 신협은 지난 5월 7일, 조합의 전일한 운영 방향을 다시금 점

토하는 자리로서 제 2 차 임직원·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후 9시, 복음유아원에서 개최된 이날 모임에는 조합의 임직원과 각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서 신천 5리와 은행 3리 이장등, 마을 임원진이 참석하여 창립 다섯 뒀을 축하해주었다. 간담회는 조합 현황 보고, 이사장 인사, 각 위원회 활동 계획 발표, 제 7 차 직원반교육 수료 보고, 임직원·위원의 조합운영 자세에 관한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일우 신부님은 ‘신협은 조합원 개개인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정구부이사장은 ‘한국의 신협 운동이 현재와 같이 단위 조합의 규모 팽창을 계속 조장, 방관한다면 그 앞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합들이 작은 단위로 나누어져 나갈 때 신협 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참석자들은 운영 전반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봉사 자세를 다짐했다.

대 차 대 조 표

1983. 5. 30. 현재

계	정	과	목	계	정	과	목
현	금	6,761,128		보통예탁		38,337,784	
제예금		2,107,054		정기예탁		26,614,626	
일반대부		135,386,500		신용적금		31,523,620	
적금대부		15,360,000		차입금		10,000,000	
범위내대부		9,194,000		가수금		770	
가지금		1,390		제세예수금		7,740	
미수이자		85,220		퇴직급여충당금		280,000	
투자금		170,000		미지급배당금		36,008	
법정출자금		650,000		출자금		53,785,578	
전화가입권		210,000		법정적립금		1,569,168	
비품및집기		477,000		특별적립금		1,326,831	
				임의적립금		1,293,520	
				지역사회계발기금		486,549	
				이월잉여금		42,668	
				당기순이익		5,097,430	
합	계	170,402,292		합	계	170,402,292	



신용협동조합세계대회

1983. 5. 29~6. 10



【신1】복음신협 소식지 제8호 (198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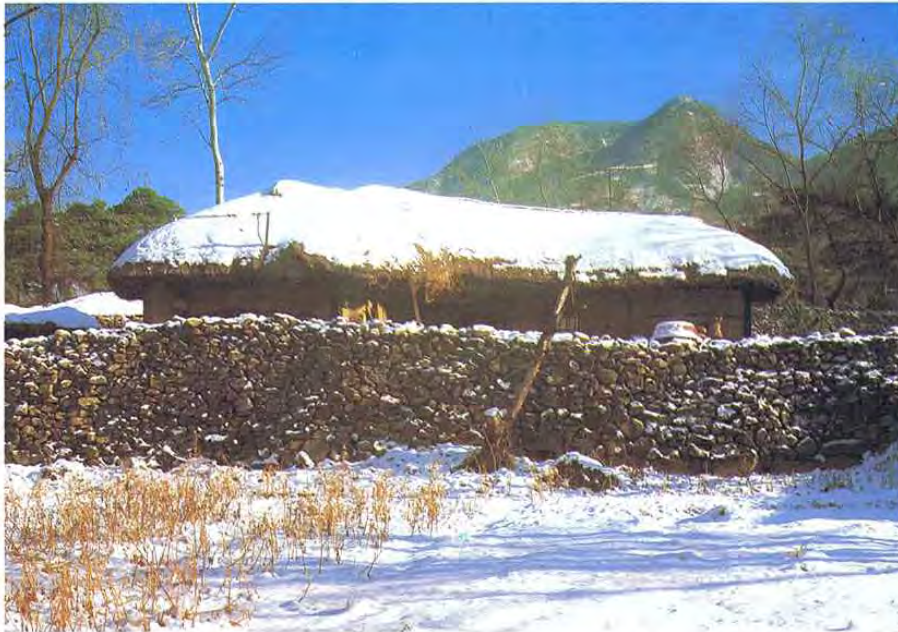
창간 2주년 특집호

신협 소리



제35호
(1994년 12월 27일)

발행인: 심병현 · 편집인: 홍보위원회 · 주소: 시흥시 신천동 91-6 · ☎ 693-6391, 692-5197 · FAX. 691-9849



복음신용협동조합

【신1】 신협 소리(복음신협 소식지) 제35호 표지 (1994.12)

신협운동의 지상목표

복지국가 건설

신협운동의 3대 과제

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

신협운동의 정신

自 自 協
助 立 同

- 표지사진 -



잠시 일손을 멈추게 하는 겨울.
한해 동안 사용하던 생활도구들을 잘
정비해서 보관해둬야 겠다.



북음신협회관 전경

통권35호

1994년 겨울

신년사	3
조합단신(회의/행사/임직원 동정)	4
취미생활(조합원 동호회 소식)	5
생활지도	6
(겨울방학은 아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볼만한 곳(수암봉)	8
건강하게 삽시다(비타민 C가 많은 배추)	9
생활상식(쓰레기 종량제)	10
직거래사업(우리 농산물을 이용합시다)	12
조합원 문예(만남)	13
조합원 문예(인연 깊은 11월)	14
모범조합원 탐방(박종찬 조합원을 찾아서)	15
독후감(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소)	16
조합원 소식, 조합실림	17
내고장 소식	18
날말맞추기, 편집후기	19
환경보전 캠페인(샛강을 살립니다)	20

4. 사 진 자 료

▣ 일러두기

- 관련 저작권은 해당 사진의 소장처에 있다.
- 본 보고서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진의 일부만을 수록함을 밝혀둔다.



1984년 복음단오제의 길놀이 일행이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



복음자리 건설을 위해 벽돌을 찍어내는 모습



한창 건설 중인 복음자리 마을



복음자리 마을 입주식



복음자리 마을 입주식



복음자리 최초의 마을회관, 복음노인정



복음자리 예수회



복음자리 마을 안 풍경



복음자리 마을 안 풍경



복음자리 마을에서 키웠던 토끼 (양토협동조합)



초창기의 복음신용협동조합 사무실



한독마을 기공식 (1978)



건축 중인 한독마을



건축 중인 한독마을



건축 중인 한독마을



복음신용협동조합 창립 6주년 기념식 (1984)



1985년 복음단오제 · 바자회



탈춤봉사단 (꼭두쇠의 전신)



목화마을 기공식 (1985)



복음신용협동조합 회관 신축공사 기공식 (1986)



어버이날 경로잔치 (1987)



복음신용협동조합 자체 회관 준공식 (1987)



완공 후의 목화연립



임신년 복음단오제 (1992)



임신년 복음단오제 (1992)



복음신협 조합원통장

내역 (내역)				잔액 (잔액)			
월	입금	출금	잔액	월	입금	출금	잔액
78.1	100-		100-	78.1	100-		11,200-
78.2	100-		200-	78.2	100-		11,300-
78.3	200-		400-	78.3	200-		11,500-
78.4	500-		900-	78.4	500-		12,000-
78.5	500-		1,400-	78.5	500-		12,500-
78.6	500-		1,900-	78.6	500-		13,000-
78.7	500-		2,400-	78.7	500-		13,500-
78.8	500-		2,900-	78.8	500-		14,000-
78.9	500-		3,400-	78.9	500-		14,500-
78.10	500-		3,900-	78.10	500-		15,000-
78.11	500-		4,400-	78.11	500-		15,500-
78.12	500-		4,900-	78.12	500-		16,000-
79.1	500-		5,400-	79.1	500-		16,500-
79.2	500-		5,900-	79.2	500-		17,000-
79.3	500-		6,400-	79.3	500-		17,500-
79.4	500-		6,900-	79.4	500-		18,000-
79.5	500-		7,400-	79.5	500-		18,500-
79.6	500-		7,900-	79.6	500-		19,000-
79.7	500-		8,400-	79.7	500-		19,500-
79.8	500-		8,900-	79.8	500-		20,000-
79.9	500-		9,400-	79.9	500-		20,500-
79.10	500-		9,900-	79.10	500-		21,000-
79.11	500-		10,400-	79.11	500-		21,500-
79.12	500-		10,900-	79.12	500-		22,000-
80.1	500-		11,400-	80.1	500-		22,500-
80.2	500-		11,900-	80.2	500-		23,000-
80.3	500-		12,400-	80.3	500-		23,500-
80.4	500-		12,900-	80.4	500-		24,000-
80.5	500-		13,400-	80.5	500-		24,500-
80.6	500-		13,900-	80.6	500-		25,000-
80.7	500-		14,400-	80.7	500-		25,500-
80.8	500-		14,900-	80.8	500-		26,000-
80.9	500-		15,400-	80.9	500-		26,500-
80.10	500-		15,900-	80.10	500-		27,000-
80.11	500-		16,400-	80.11	500-		27,500-
80.12	500-		16,900-	80.12	500-		28,000-
81.1	500-		17,400-	81.1	500-		28,500-
81.2	500-		17,900-	81.2	500-		29,000-
81.3	500-		18,400-	81.3	500-		29,500-
81.4	500-		18,900-	81.4	500-		30,000-
81.5	500-		19,400-	81.5	500-		30,500-
81.6	500-		19,900-	81.6	500-		31,000-
81.7	500-		20,400-	81.7	500-		31,500-
81.8	500-		20,900-	81.8	500-		32,000-
81.9	500-		21,400-	81.9	500-		32,500-
81.10	500-		21,900-	81.10	500-		33,000-
81.11	500-		22,400-	81.11	500-		33,500-
81.12	500-		22,900-	81.12	500-		34,000-

복음신협 조합원통장



복음신협 부설 열린학당 제1기 졸업식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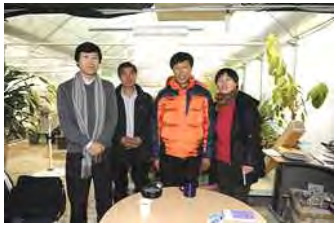
신사년 복음단오제 · 바자회에 열린 씨름판 (2001)

5. 현 장 조 사 일 지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2.07.10(화)	• 북음자리 마을과 목화연립 주변의 현재모습 촬영 • 과거 위치와 그간의 변화를 살펴봄	 
2012.07.20(금)	• 골목조사 : 진주아파트, 극동아파트, 한영아파트, 녹원아파트	 
2012.07.31(화)	•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 조옥화 관장 면담 • 슬라이드 필름 및 「작은자리」 소장 기관 문서 수집 및 복사	
2012.08.28(화)	• 목화연립 입주 이전부터 천막생활을 하며 집을 짓은 과정을 지켜보다가 완공후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남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2.08.29(수)	• 목화연립 주민 대상 사진자료 수집 (대여 후 스캔) • 스캔한 사진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경설명과 생활상 채록	 
2012.09.10(월)	• 복음자리 신명자 이사장 면담 • 슬라이드 필름 자료 수집(스캔)	
2012.09.11(화)	• 복음자리 신명자 이사장 면담 • 슬라이드 필름 인화하여 사진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 조사	
2012.09.14(금)	• 복음자리 거주 백형언씨 면담 • 복음자리 입주과정과 건축공사에 대한 구술 채록, 사진자료 수집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2.09.25(화)	• 목화연립 주민 면담 : 이주사와 개인 생애 청취	
2012.09.27(목)	• 목화연립 추진위원장 면담	 
2012.10.08(월)	• 목화연립에 거주했던 김숙진 면담 • 당시 활동했던 젊은 층의 이야기, 그녀가 추억하는 마을이야기 청취	
2012.10.15(월)	• 마을 주변 탐문 조사 • 이순복 할머니 구술 청취(한독마을, 대우아파트 입주 어르신 이야기)	
2012.10.16(화)	• 극동아파트, 진주아파트, 광덕아파트, 연희아파트 주변 탐문 조사(경비실, 관리사무실)	 

조사일자	조사내용	비고 (관련사진)
2012.10.18(목)	• 목화연립 주민 면담 : 목화연립 건축 과정과 주변 마을의 당시 풍경 청취	
2012.11.01(목)	• '복음청년회', '소래장청년회' 활동을 하다가 복음자리 잼공장에서 공장장을 지낸 김광남 인터뷰	
2012.11.12(월)	• 1979년 한독마을 입주하여 주민들과 소통한 심병현 신협 전 이사장 인터뷰 • 집단 이주에 관한 의견 청취	
2012.11.30(금)	• 위성종 신협 이사장 인터뷰 • '소래장청년회' 활동 및 복음단오제 행사 전개과정 청취	
2012.12.02(월)	• 신협 방문, 복음신협 초창기에 만들었던 복음신협 소식지 창간호(1981)부터 35호(1994)까지 자료 수집 • 복음단오제 관련 사진 수집	
2012.12.04(화)	• 박병구 인터뷰(제정구 장학회 관련)	